

## The CRY 기도불길로 타오른 할리우드

전세계 연예계와 미디어계 심장 부인 할리우드가 성령의 불길로 타올랐다.

15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유니버설 스튜디오 김슨극장에서 열린 "The CRY Hollywood" (동곡기도회)에 약 1200명이 모여 할리우드를 위해 금식을 하며 회개와 용서, 선교의 기도를 드리는 등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다.

동양인, 백인, 흑인, 라티노 등 인종과 교파를 초월해 모인 참석자들은 춤을 추고 찬양을 하며, 그림을 그리는 등 각자의 다양한 은사를 드러내면서 기도에 힘썼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연예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영화들이 만들어지도록 △섹스 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구원되도록 △우리 세대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증가하도록 하는 등의 기도가 주를 이뤘다.

한인 목회자 중 대표로 참석한 전두승 목사(킹덤빌더즈미니스트리)는 "할리우드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자비와 은총으로 이 땅이



1200명의 성도들이 인종과 교파를 초월해 할리우드의 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 "미디어 통해 복음이 확장되도록..." 인종 교파 초월해 합심 기도

복음화 되게 해 주옵시고, 미디어를 통해 전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한국어로 기도했다.

이어 강순영 목사(JAMA 부대표)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복음적인 영화들이 많이 제작되게 해 주옵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다

회개하고 주께 무릎 꿇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회를 이끌었다.

이날 캐나다, 라티노, 한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남아공, 우간다, 중국 등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석해 각자의 언어 혹은 영어로

기도회를 인도했다.

이 집회는 www.godtv.com을 통해 전세계로 생방송됐다.

행사의 주최는 2002년부터 캐나다에서 8번의 전국 집회를 이끌었던 캐나다 중보기도 모임에서 했다.

토마스 맹 기자

## 한민족 디아스포라 구국기도회 열린다

28일 저녁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에서 조국, 탈북자, 디아스포라 위해 기도

조국과 탈북자, 700만 디아스포라를 위한 '한민족 디아스포라 구국기도회'가 28일 오후 7시 30분에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박성근 목사)에서 열린다.

행사 주최는 미기총, 남가주교협, 남가주목사회, 남가주기독실업인연합회, 남가주장로회에서 공동으로 한다. 준비위원장은 이재권 장로(전 남가주기독실업인회 회장)가 맡았다.

기도회 강사는 이정근 목사(유니온교회 원로)가 서게 된다. 미기

총 대표회장 송정명 목사는 15일 뉴서호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치색을 배제한 기도모임이니 조국을 위해 많은 참여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기도회 기도제목은 △한국과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 △탈북자와 북한 동포를 위해 △남북통일을 위해 △한미 유대관계 증진을 위해 △700만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위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4.11 총선을 위해 등이다.

토마스 맹 기자



구국기도회를 준비하는 관련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INTERVIEW

### "나는 종입니다" 고백이 목회의 제 1원칙

높은 산을 오를 때 누가 밀어주고 당겨준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 먼 길을 갈 때 누군가 말동무가 되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김영길 목사는 목회자 후배들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있는 목사다. 후배들이 목회에 대한 질문을 갖고 온다면 어김없이 빠듯한 일정을 쪼개 반드시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열정적인 멘토다.

1983년 김영길 목사와 세 가정이 모여 창립한 감사한인교회는 그 지역을 대표할만한 건강한 교회다. 긴 역사동안 한번도 싸움으로 인해 분열된 적이 없는 것이 큰 자랑이다. 그러나 이 자랑 속에서 오히려 "다른 교회를 세운 적도 없지 않느냐"는 성령의 질문을 받고 열정적으로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해 벌써 남가주 지역에 5개를 개척했다.

이 과정에서 김 목사는 후배들을 훈련시키고 발탁해 교회 개혁의 일꾼으로 세웠다. 주일예배 광고 시간에 "따라 갈 사람은 다 가라"고 하며 후배의 개혁에 힘을 실어 주기도 했다. 그런 식으로 개척된 교회들은 독립된 교회로서 각자의 지역에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후배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는 그는 후배 훈련에 남다른 소신을



김영길 목사

갖고 있다.

먼저 목사는 분명한 소명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적 문제, 사회적 지위, 명예 등에 있어서 초탈하지 않고 이 길을 경솔하게 선택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를 지망하는 이들 에겐 오히려 까탈스러울만큼 '다시 생각해 보라'고 권한다.

그러나 일단 소명이 분명하면 '목회의 성공'이란 질문의 관점을 성장이나 변연이 아닌 기쁨과 행복, 주님의 칭찬이란 관점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훈련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 상기시켜 준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 보자.

→ 2면에 계속

**TAX 문제 전문** 자신동결 및 은행구좌 차입해결, 일리세금삭감, 세무감사내비 전 IRS 행정관, 감사관, 수사관 40년 경력의 세법전문가, CPAs

Clients	Case (Dec/11-Jan/12)	Results
Mr. Hwang, W	IRS \$62,317	합의 \$8,218
Mr. Lemmonier, H	FTB \$118,874	합의 \$1,700
Ms. Wilson, M	IRS \$450,190	합의 \$20,160
Mr. Kim, H (C. Corp)	BOE	Sales Tax Audit Dismissed
Mr. Rogers, A	IRS \$327,280	Levy lifted & \$500/mo
Mr. Farley, C	IRS \$3,112,350	합의 \$0

**TAX HELP TEAM (213) 248-0221**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21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귀국 자동차운송 업계최저 \$950**

무료 전화 877-580-2424 / 323-582-2424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하나헬스보험**에서는  
**1947년 메디케어 신청을 무료로 도와 드립니다!**

하나헬스에서 한인 시니어의 메디케어 신청시 도와 드리는 일

- 처방약 비용 보조 프로그램의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EXTRA HELP PLAN)
- 귀하의 재산 그리고 소득에 따라 메디칼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MEDI-CAL)
- 메디케어 보험료 보조 프로그램의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MEDICARE SAVINGS PROGRAM)
- 메디케어 플랜 부족분 보충 보험을 보장 하는 메디케어 파트 C 프로그램의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 귀하가 복용하시는 처방약의 종류에 따라 가장 적절한 처방약 플랜의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하나헬스는 한인 시니어의 메디케어 신청일부터 메디케어 플랜 가입 후의 모든 서비스를 언제나 함께 합니다.

세미나 일정 : 3월 24일 (토) 오전 10시 @ LA 사무실  
3월 31일 (토) 오전 10시 @ TORRANCE 사무실

WEBSITE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WWW.HANAHEALTH.NET**  
웹사이트에서는 보다 쉽고 빠르게 질의응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인 시니어 고객 서비스를 가장 중시하는 하나헬스건강 보험의 전화번호는  
**213-500-4563 1-855-386-3088**

LA 사무실 DAVID KANG 3600 WILSHIRE BL 1620 LOS ANGELES, CA 90010  
ROWLAND HEIGHTS 사무실 ALLEN MIN 1722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OC 사무실 MI YOUNG HONG 6011 ORANGETHORPE AVE #A, BUENA PARK, CA 90620  
TORRANCE 사무실 SARA IM 20695 S. WESTERN AVE #240, TORRANCE, CA 90501

건강하게 성장하며 교회 5개 분립개척한 감사한인교회의 김영길 목사 인터뷰

# 성공적인 목회 묻기보다 본질을 찾는 목회 우선돼야



-개척해서 현재까지 한 교회에서 성공적으로 목회하고 계십니까. 노하우가 있다면?

사실 저는 스스로 이것이 제 장점이다 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할 때 오히려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고 후회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다만 한가지 제 장점을 굳이 꼽으라 한다면 끊임없이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는 태도, 변화되려는 노력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도 특출한 재

능이 없어서 매주마다 주님께 목매야 합니다. 어떨 때는 사랑의 습바꼭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일 오전 새벽 2시까지도 설교를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주제도 다 나왔고 제목까지 정해져 있지만 제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감동을 주겠습니까? 제가 "평"하고 울러야 성도들에겐 "평"이라 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목숨을 걸고 우는 수 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대로는 안됩니다. 하나님 이 주시는 확신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히 성장해 온 교회입니다. 저는 70년에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했고 7년간 '신앙계'라는 잡지에서 사역하다가 곧장 미국으로 유학와 83년에 하나님의성회에서 안수받으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조용기 목사님의 목회를 어깨 너머로 보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받진 못한 상태였습니

서 돕니다. 그런 모습을 저는 그려 봅니다. 그런 위로가 이민교회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변화까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된 이들이 세상에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카리스마적 목양을 받건, 따뜻한 목양을 받건 결국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 주님께 절대 의존하며 이민목회 29년

###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는 것

### 목회 트렌드? 핵심은 주님 사랑, 성도 사랑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확신을 갖길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이 시간이 아주 짧을 때도 있지만 또 아주 오래 걸릴 때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지난 한 주간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으면 오래 걸리고 그렇지 않으면 짧게 걸립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신데 멀리 떠났던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데에 걸리는 시간만큼 준비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일주일동안 주님과 동행했을 때에는 마음에 감동이 금방 오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는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로지 주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부족한 사람임을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은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보다는 따뜻한 목양 리더십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에 있어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필수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오랜 세월을 걸쳐서 꾸준

다. 즉, 엄밀하게 말하면 부목회 등을 통해 목회에 대한 실천 훈련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저는 시골 출신인데, 제가 어릴 적부터 보아 왔던 시골교회 목사님의 모습을 자주 기억합니다. 양복 한벌을 갖고 검소하게 목회하던 분들, 평생 교인들이 가져다 주는 성미를 먹으면서 새벽부터 수고하던 분들의 모습이 제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돌보는 목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목자는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 주셨으니 우리가 목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카리스마적으로 양떼를 이끄는 분도 있고 저처럼 조용조용한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강하게 도전하고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어서 오히려 잘되는 교회도 있고 위로주고 섬기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 더 좋다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민 목회에 위로가 참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밖에서 놀던 애들이 싸우고 집에 들어오면 엄마를 찾아 옵니다. 그래서 칭얼대고 밥도 먹으며 다독거림 받다가 눈물 닦고 다시 나가

-목회의 스타일을 이야기 하는 것이 시대마다의 트렌드일까요? 아니면 목회에 대한 근본적 접근법에 대한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둘다 'Yes'입니다. 한국사회적으로 볼 때 1960-70년 대에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8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강한 리더십이 "나를 두말하지 말고 따라오라" 할 때 사람들이 그 말 듣기를 주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요. 미국은 더 자유로운 사회이니 더욱 그러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 가는 트렌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막론하고 목회를 대하는 목회자들의 태도는 하나여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면 카리스마적이건 그렇지 않건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카리스마적으로 성도들에게 강한 도전을 주는 목회자가 있는데, 그가 만약 자신에게는 더욱 엄격하다면 그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내면이 강해야 하며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진보적 신학교인 한신대를 졸업하셨는데 목회

**TOP MEDIA**  
교회설교 CD제작  
성가대 및 찬양대 소규모 앨범 제작  
교회에 필요한 모든 미디어용품 판매  
**TEL. 323-265-0244 FAX. 323-265-0250**  
3170 E. 11th St., Los Angeles, CA 90023  
www.topmediausa.com topmediausa@yahoo.com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사건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LA사랑의교회 제3기 임직예배에 초대합니다.**

LA사랑의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제2기 장로와 제3기 안수집사 및 권사들을 세우는 임직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몸을 낮추는 섬김과 은밀한 데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역을 겸손으로 감당할 것을 다시 각오하는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셔서 새롭고 임직을 받는 분들에게 권면과 격려를 아낌없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LA사랑의교회 담임목사 김기섭 외 교우일동 드림

**일시: 주후 2012년 4월 1일(주일) 오후 4시 장소: LA사랑의교회 본당**

**제2기 시무장로**  
김영만 김진상 김홍준 정중원 조석일 최방락

**제3기 안수집사**  
김문근 서성교 오경근 이영섭 이계영 인치훈 장계빈 정영환 조상연 최현석 최홍 함경호

**제3기 시무권사**  
김순애 김유진 김혜영 나경희 이진숙 인영수 전명애 장명순 정숙영 정현순 정희숙 조미숙 조영일

**LA사랑의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9시 50분 3부 정오 12시 대학청년부 오후 2시 22분 EM 오후 2시**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전화 213-975-1111 www.LASarang.com

한인타운에서는 1가 (Beverly) 또는 3가를 타고 다운타운 쪽으로 오시다가 Beaudry (110번 직전)에서 좌회전 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마치 물과 같아서 이곳이 막히면 저곳이 열리고 이리 저리 흐르다 보면 강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제 인생도 제가 계획한대로 된 것은 없고 모두 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목사는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달라 목회자가 기도도 해야 합니다.

후배 목회자들에게 좋은, 진지한 질문을 하라는 것과 완성된 목회자에 대한 시각을 바꾸길 조언하고 싶습니다.

감사한인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300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후 우리 교회는 두세개의 교회를 더 개척했고 빅토리아에도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까지 했습니다. 최근에 영어목회 교회까지 세우면서 총 5개의 교회가 개척됐죠.

성공적인 목회는 무엇인가?

질문 바꾸어야 진짜 성공한다

혼자 가면 힘든 목회, 후배 향한 애착 커

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한신은 진보적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 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젊은 목회자들은 "배울만한 선배가 없다" 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배울 것이 없다. 그 말은 배우지 못하고 있던 말이겠지요? 배우는 것은 잘 되는 데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에서도 배우는 것입니다. 좋은 학생은 좋은 질문을 할 줄 압니다. "왜 저 교회는 저랬지"라고 현상만 보고 비판하지 말고 그 내면에 무슨 일이,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탐구하는 자세가 있다면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후배들에 대한 애착이 많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목회에 관해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한다면 제가 점심값을 내고라도 시간을 꼭 빼곤 합니다. 그들의 주된 질문은 "어떤 목회 방식이 성공적인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한다면 답이 없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를 키우는 것인가요? 아니면 건물을 잘 짓는 것인가요? 누군가는 다 써 먹었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삶이 올바른가요? 어떤 목양이 주님께 칭찬받는 것일까요? 어떤 목회가 행복할까요?"라고 묻는다면 이것은 참으로 좋은 질문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면 끝인가요? 목사는 만들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훈련시키며 목사를 만들어 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감사한인교회가 최근에 들어 지교회 개척을 시작하셨지요?

한 6년 전, 우리 교회가 23주년을 맞이할 때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큰 자랑 중 하나는 한번도 분열되거나 싸워서 깨지거나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것을 자랑하곤 했는데 어느날은 성령께서 "그래, 그것도 맞는 이야기이지만, 교회 하나도 세워본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싸워서 나뉘어진 교회도 소중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던 중에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교역자 한 명과 장로 한 가정을 보내서 개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큰 일을 한 번 해 보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는데 감동도 기쁨도 없으니 막막했습니다. 2주 뒤 새벽기도 시간에 성령께서 "개척 계획을 발표할 때, 그 부교역자를 따라 가라고 하는 성도가 있다면 따라가도록 광고해라"고 도전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만 빼고 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별 수가 있나요? 결국은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 제가 순종할테니, 제가 그 광고를 할 때 제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가식, 위선 없이 진실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발표하던 그 주일에 그렇게 광고했습니다. 개척을 보낼 목사 부부와 장로 부부를 세우고 이분들을 따라 가실 분들은 다 가시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약 30여명이 그들을 따라 개척을 가 코로나

-지교회들에 대한 자부심이 크시겠습니까.

자부심보다는 그 교회들이 모두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들을 지교회라 부르지 않습니다. 다 독립된 교회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각 교회의 담임목회자들이 제게 조언을 구하러 온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제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도 않고 재정에 대한 참견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제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자 올라 가려면 힘들고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함께 올라가면 동시에 수준이 높아집니다. 옛날에 시골교회가 그렇게 성장해서 면마다, 읍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거리가 머니까 이쪽 읍에도 하나 세우자 해서 세워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 것 뿐입니다.

-교회를 분립, 개척하면서 인력에서나 재정적으로나 손실이 적지 않으셨을텐데.

누군가 다 길러주고 가르쳐 주셔서 제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만 하고 배풀지 않는다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그것은 청진받지 못할 일입니다. 질량불변의 법칙을 아십니까? 어떤 화학반응이 생기거나 변화가 생겨도 최종적인 그 물질의 질량은 불변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나눠 주어도 결국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가지 않고 교회를 위해 사용됩니다. 젊은 세대를 길러내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후배들을 길러내는 일이 저는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선배가 후배를 멘토링하는 일이 값진 일이지만 이민교회에서 그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지요.

세대 차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1세라도 세대 간에 사용하는 용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2세대와는 더욱 차이가 커집니다. 선배들은 보석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후배들은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보통 1세대는 후배가 찾아 오길 기다립니다. 2세대는 선배가 와서 가르쳐 주길 바랍니다. 1세대는 권위 때문에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2세대들은 사생활을 침해하고 싶지 않아서 불러 주기 전에는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면 됩니다. 물론 언어의 문제도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인간적인 관계가 잘 형성되면 충분히 극복이 됩니다.

불러서 함께 점심만 같이 먹어도 됩니다. 처음에 2세대는 "뭘 혼내시려고 불렀나" 생각하겠죠. 그러나 1세가 진실된 마음으로 교제하길 원하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 속내도 이야기 하고 멘토링도 청해 옵니다. 이런 면에서 1세 목회자가 2세 목회자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집에서 보십시오. 혼난다고 배운니까? 관계를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그와의 관계 속에서 배우는 것이 참 배웁니다. 1세대들이 2세 목회자로 하여금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죠.

-많은 2세 목회자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지만 너무도 힘겨운 목회에 탈진해 이탈되는 현상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들이 신학교에 갔을까?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들이 풀림을 받았을 때 어떤 멘토와 어떤 상담을 했을까요? 과연 그 풀림을 심하게 고민해 보고 받아들였을까요? 고등학생 때까지는 교회가 좋습니다.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찬양도, 놀이도, 문화 생활도 그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 행복했는데 주변에서 '목회자가 되라'는 권유를 받으면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로 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14장에 땅대를 세우는 이가 공사 전에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냐고 하십니다. 만약 기초만 쌓고 결국 완공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는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현실적인 분이셨습니다. '믿습니다'로 끝이 아닙니다. 현실에 터를 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멘토는 신학교 3년을 마치고 훈련받아 목회자가 되면 네가 누릴 경제적 여건이 어떤지 아느냐고 물어 봐야 합니다. 내가 평생 고생하면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누릴지 생각해 봤느냐고 물어 봐야 합니다. 그들이 다루게 될 것이 폐이퍼가 아니라 사람임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동물 다루기도 힘든데 사람을 돌보는 건 더욱 힘든 것입니다. 더 많은 에너지와 수고가

필요한데 네가 이렇게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미래가 창창한데 꼭 목회를 해야겠느냐고 물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 생활을 해 보니 즐거웠다"가 이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진지한 고민과 갈등 속에 목회의 길을 결심할 수 있도록 멘토들이 도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후배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신다면.

목사가 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무게도 큼니다. 진지한 태도로, 감사한 태도로, 두려운 태도로 목회를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리소스를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생명의 말씀을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빈손입니다"라는 자세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굴복하고 순종할 때만이 남부요게 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나는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 목회입니다. 김준형 기자

Advertisement for 'Good Morning Insurance' (굿모닝 보험) with contact info: 213.761.9990,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Large advertisement for Los Angeles ORT College. Includes college logo, contact info for Grace and Greg, and a list of programs like Medical Office Management, Computer Aided Design, and ESL. Also features photos of students and staff.

# HIS교회 창립 “Why not NOW?”

## “움직이는 교회, 흠어지는 교회 되길”



HIS교회가 창립예배를 통해 교회의 비전과 사역을 재확인하고 힘찬 도약을 선포하고 있다.

HIS교회(안민성 목사)가 창립 예배를 11일 오후 2시에 드렸다. 이 교회는 지난해 2월 첫 예배를 드리고 이번에 창립예배를 드림으로 교회 탄생을 만방에 알렸다.

안민성 담임 목사는 “교회는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나를 지배하는 일이 최근에 일어나게 됐다”며 “그동안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머리 속으로 생각했지, 마음으로 느끼지 못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교회, 이게 하나님의 교회다”고 말했다.

안 목사는 목회 철학에 대해서 “성도들이 주님께 갈 때 많은 상급을 가져가도록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곳에서 5분 거리에 100년 전 야주사 대부흥운동 원천지인 바니브레아 하우스가 있다”

며 “하나님께 부흥에 관해 ‘Why not now?’라고 기도하며 물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는다. 부은만큼 상급을 받는 교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소회를 전했다.

축사한 이재환 선교사(Come Mission 대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 생명이 살아나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며 “선교

는 교회,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또 이 선교사는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 언젠가는 사라지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며 “육신의 교회가 아니라 각각의 성도가 움직이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흠어져서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유정수 형제가 40여 분간 눈물의 간증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했다. 이어 30여명의 HIS교회 성도들이 강단에 나와 5분 동안 축하객들의 축복기도를 받기도 했다. 예배는 정호윤 목사(나성성결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안민성 목사는 1995년부터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텐베츠부장으로 교회 담임, 2000년부터 북가주 크로스웨이교회 담임, 2007년부터 뉴욕장로교회를 담임 목회한 경력이 있다.

HIS교회는 Come Mission과 동역의 관계를 맺기도 했다. 위치: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문의: 213-598-0447

토마스 맵 기자

## 실버아카데미 ‘웃으면 복이 와요’

실버아카데미(원장 곽소건 목사)가 13일 오후 7시에 웃음 치료사 손상언 씨와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15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이민생활의 바쁘고 피곤한 삶을 잠시 잊고 신바람 나게 웃으면서 마음의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실버아카데미는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개설된 과목은 노래교실, 생활영어, 댄스, 건강

체조, 레크리에이션, 시사정보, 교양강좌 등이 있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단체는 순수한 도네이션에 의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무료로 운영되고, 진행되는 활동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동영상으로 제공된다.

위치: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문의: 714-329-7906

www.silveracademy.org 토마스 맵 기자

## LA비전교회 창립 2주년 맞이해



임직자들이 교회에 충성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LA비전교회(김대준 목사)가 창립 2주년 감사 및 임직예배를 18일 오후 4시에 성대히 드렸다.

설교의 자리에서 김대준 담임목사는 “LA비전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목숨 건 교회다”라며 “가정이 곧 학교면서 교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분이요. 임직자들은 죽도록 충성하며 착한 임직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장로 3명, 안수집사 2명, 권사 2명 등 총 7명이 임직

을 받았다.

1부 예배는 기도 서해평 목사(Global Intercessors Network 선교사), 봉헌기도 김경환 목사(SBC 선교사)로 진행됐으며, 2부 임직식에서는 축사 강일하 목사(CGN 미주본부장), 권면 제이슨 차 목사(Change Point Ministry 대표), 축도 현용수 목사(세마교육연구원 원장)의 순으로 진행됐다.

위치: 2500 Wilshire Bl. LA, CA 90057 문의: 213-386-9191

www.lavisionchurch.com 토마스 맵 기자

## 토랜스조은교회 박인화 목사 초청 집회 성료

###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토랜스조은교회에서 침례교단의 대표적 설교자인 달라스 뉴송교회 박인화 목사를 초청, 부흥회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쳤다.

한 성도는 “박 목사님은 설교 시간마다 활동적인 움직임과 달변으로 듣는 이들을 사로잡았고 무엇보다 성경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가르치는 달란트를 가져 온 해가 더욱 컸다”고 감중했다.

특히 박 목사는 지난 18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가짜와 진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릴 대하실 때 죄를 꼬집는 분이요. 우리는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성경은 만일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신다. 만일 이것을 믿지 않고 현신한 분이려면 지금까지 헌신했던 모든 것이 가짜다. 산 제사란 우리의 시간, 재능, 재물로 헌신함을 뜻하고,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신다”고 말



조은교회 성도들이 설교 후 결단을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했다. 또 “우리 교회가 예전에 미국 교회에서 매달 200불씩 내고 교회를 렌트해서 사용할 때 어느날 그 교회 목사님이 렌트비를 2000불로 올려 달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건 교회가 아니라 렌트 회사다’라고 투덜거리며 2년 동안 그 렌트비를 지불했다. 그러다 교회를 지어 임대예배를 드리게 되어 그 목사님을 초청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문제로 논의할 때 내가 ‘그래도 오랫동안 신세진 교회인데 초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초청했는데 그때 그는

2년동안 렌트비를 모아 놓은 5만 불을 현금해 주더라”라며 “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몸으로 헌신해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열매, 백배로 채워주시는 분이요.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란다”라고 설교를 마쳤다.

사회는 김바울 담임목사가 맡았고, 대표기도는 김영설 장로가 맡았으며, 설교 후엔 다 함께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를 뜨겁게 드렸다.

빅터 박 기자

## 베델한인교회

### 제13회 프뉴마워십

오는 24일 오후 7시 얼바인에 소재한 베델한인교회(손인식 담임목사) 본당에서 초교파찬양팀인 Worshippers와 베델한인교회 찬양팀인 Alive Worship Ministry가 함께 하는 연합사역인 제13회 프뉴마워십이 ‘생기, 생령, 생명’이라는 주제로 집회를 갖는다.

이 집회는 두 찬양팀이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 인도하는 주중 예배로 매 3개월마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찬양과 기도, 메시지를 담으면서 드러지는 워십 서비스이다.

또 이민교회, 특별히 오렌지가운터 지역의 성도들과 한인교회를 향해 열려 있는 찬양예배라 할 수 있다. 프뉴마란 호흡, 바람, 생기라는 뜻으로 곧 성령을 뜻한다.

이 프뉴마워십은 매번 집회마다 CTS기독교 방송 등을 통해 예배 실황이 방송되며 이를 통해 전 한인 이민교회를 찬양과 예배로 섬기는 사역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빅터 박 기자

## 소망장로교회 LA로 이전

소망장로교회(성요셉 목사)가 터헝가(Tujunga)에서 4년 6개월의 목회를 마치고, LA로 예배 장소를 옮겨서 이전감사예배를 18일 오전 11시에 드렸다.

‘블레셋 땅에 사는 아브라함’(창21:22-34)이란 제목으로 이날 설교를 전한 성요셉 담임 목사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블레셋 땅에서 낳았다”며 “그가 블

레셋에서 계속 산 이유는 약속이 이뤄졌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LA로 보내신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 목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주의 성도들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위치: 520 S. La Fayette Pl. #400 LA, CA 90057 문의: 213-487-2481

빅터 박 기자

# 오렌지카운티 지역 교회연합 부활절새벽예배



사회: 엄영민 목사 (OC교협회장)    기도: 한기홍 목사 (OC교협중경회장)    설교: 한중수 목사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기도: 손인식 목사 (베델한인교회 담임)    축도: 신중은 목사 (OC목사회회장)

일시: 2012년 4월 8일(주일) 새벽5시  
장소: 베델한인교회 본당(담임 손인식 목사)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문의: 949.854.4010

사회: 엄영민 목사(OC교협회장)  
기도: 한기홍 목사(OC교협중경회장)  
설교: 한중수 목사(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헌금기도: 손찬우 집사(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회장)  
축도: 신중은 목사(OC목사회회장)

기도콘서트  
탈북자 인권과 북한의 복음화(손인식 목사)  
미국과 한국의 영적 회복(고석찬 목사)  
미국과 한국의 선거와 정치 안정(민경엽 목사)  
미국과 한국의 경제 회복(고건주 목사)  
다음 세대의 교회 정착과 부흥(윤덕곤 목사)

찬양  
베델한인교회 연합성가대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성가대  
얼바인침례교회 성가대  
베델한인교회 경배찬양팀  
할렐루야 연합찬양(지휘 송규식 목사)

주최: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엄영민 목사) / 오렌지카운티목사회(회장 신중은 목사) / 오렌지카운티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손찬우 집사)

# 양과 염소의 구별

마태복음 25:31~46

장재효  
서울 성은교회 목사



성경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종말론적 심판에 대해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를 구분해서 가르칩니다. 천상교회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신령한 영들이 그곳에 가서 순진하게 영적 소망의 분위기로만 교제하는 곳이고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신자와 불신자가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받아 온 새신자들은 믿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다 할지라도 아직 깨닫기 전이라면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다니기 시작 하면서부터 서둘러 하루 한 시간이라도 빨리 구원을 얻어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기를 힘써야 그 사람이 언제 죽더라도 그 영혼이 하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1.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아들됨

영국의 어느 광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초대받아 광부 8,000명 가량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동안은 광도에 들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그 설교가 듣고 싶지 않아도 잠깐이나마 휴식을 취하기 위해 모두 앉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어져서 잘못 살았던 지난날들을 용서해 달라고 울부짖으며 회개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영적 충만한 모습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지독하게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빌리 그레햄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가 부족해서 말씀을 통한 권세와 능력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집회 날 비지빔을 흘리며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집회가 다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던 길에 누군가 뒤에서 "저는 목사님이 땅을 흘리고 목이 쉬도록 외치시지만 그것이 도무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알고 싶지만 깨달아지지 않는 말인듯 싶어 길에 앉아 그 사람에게 복음의 기본교리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하는 것을 들어보면 제대로 듣지 않은 사람과 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시간낭비인 것 같아 돌아가라고 권했으나 이 사람은 말씀 중에 믿지 않는 자는 유향불이 있는 지옥으로 간다는 말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 이렇게 떠날 수가 없으니 제발 깨닫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에 목사님은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한 후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함으로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 영혼은 성령을 받고 영적 소망의 기쁨으로 밤새도록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광도에 들어갔던 그는 광도의 버팀목이 무너지면서 그곳에 묻혀 버렸습니다. 구출 과정에서 구출된 많은 사람들은 죽었으나 이 사람만은 주머니 속에 있었던 요한복음으로 된 쪽복음

을 가슴에 안고 죽음을 준비하며 기도했지만 이 사람만은 살아 남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실 줄 알고 어젯밤에 제 영혼을 구원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온 삶은 후회스러운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리고 가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하는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신 줄 믿습니다. 후에 신학을 하고 이 사람은 목회자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쓰실 기대 때문에 허물어진 겉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붙들어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고 그 고집대로 그 밤을 보냈다면 죽었을 것입니다.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 2. 양과 염소의 기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소망의 구원을 확실하게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반드시 허락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상태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심판 날에 예수님이 심판장으로서 공명정대하게 판단하시어 양과 염소를 갈라내실 것입니다. 구원 얻은 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영적인 성과를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은 크게 칭찬하시고 영생의 주인공으로 들어 보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 다니면서 교인으로서의 행세는 했으나 예수님 보시기에 영적인 소망이 실패하여 쪽정리와 염소로 확인되면 그 원리에 두실 것이라 합니다. 성경에서 양과 염소로 표현한 것은 양은 온순하여 그 목자의 말을 잘 듣고 다르지만 염소는 고집쟁이고 음탕하고 욕심꾸러기 성격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고집쟁이고 욕심쟁이라 함은 지나친 자기중심적 성격을 말하고 음탕한 것은 헐기와 정욕뿐인 것을 말합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마25:32-33) 오른쪽은 항상 보호와 힘이 되는 것을 상징하고 왼편은 버려지는 의식의 위치가 됩니다. 오른쪽에 둔 양떼들에게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마25:35-36)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의인들, 신앙인격이 올바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임금에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보았나이까"(마25:27-29)하고 묻습니다. 이들의 솔직한 질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25:40)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마25:34)라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마25:41-43)하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당당하게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마25:44)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21-23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십니다.

오래 전 성은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진 것이 적었지만 걱정없이 나누어 살았었지만 그러지 못해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적은 것이라도 나누어 먹이려고 애를 쓰곤 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예배당을 짓기 위해 땅을 파내고 벽돌을 만들어 가며 예배당을 지을 적에 모두가 먹을 것이 없어 뼈적 마른 모습으로 노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도 해 줄 것이 없는 자신을 바라보며 참으로 마음 아픈 적도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영양실조로 쓰러진 교인을 부둥켜 안고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게 주어진 사명이기에 감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가 김포에 있는 도랑에 메기, 붕어, 미꾸라지 같은 것들이 바가지로 퍼 올릴 정도로 많다는 말이 귀가 번쩍 뜨여 보리밭 섞인 밥을 싸 가지고 교인들 여럿과 함께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하여 아무리 찾지도 몰고가는 한 마리로 보이지 않았습다. 싸가지고 간 보리밥을 먹으면서도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의 심스런 마음을 가진 자가 생겨날까 봐 걱정도 되어 얼른 밥을 먹고 한적한 곳에 가서 이대로 돌아 가면 성은교회 부흥에 막대한 지장이 올 거라며 고기를 많이 잡아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후 일어나서 도랑 두쪽으로 가다보니 그곳에 고기가 많이 있기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 고기를 많이 잡아 가지고 돌아오면서 참

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교회에 가지고 와서 그 고기로 국을 끓여 굶주린 교인들에게 배가 부르도록 먹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왜 믿고 살지 못하는 겁니까? 믿음으로만 살았다면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목자로 하여금 가슴이 뿌듯하도록 하나님 앞에 연거푸 감사만 터져 나와야 할 것인데 지금도 병든 양떼, 헐벗고 굶주린 양떼가 있으니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 3. 피할 수 없는 심판

예전에 서울법원 판사를 하고 있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한강 상류 쪽으로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즐기던 중 한 청년이 한강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청년의 발목을 잡고 끌어 올려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후 그 가족들은 고마움에 때때로 찾아와 죽을 목숨 살려준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판 중에 피고석에 선 자가 자신이 구해 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아는 사람이라 내심 기대를 하고 자신을 장로님께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나는 판사로, 너는 죄인으로 이 자리에서 선 것이다. 예전에 너를 살리신 이는 하나님 이셨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너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은 것 뿐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하며 죄지음을 책망하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용서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칼날같이 예리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선 처해 주지 않으려면 왜 그때 나를 살렸느냐며 원망 섞인 소리를 했습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잘해 주어서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보내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진리에 입각해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공명정대하게 양떼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야 합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12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날선 검이 우리의 죄악된 것을 완전히 도려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을 살리는 수술 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무디어지게 만들어 자신의 양떼의 등이나 굽어주는 어리석은 목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겸손하고 진실된 양의 성품으로 거듭나도록 합시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신앙인의 모습이랍니다.

"교회 전도팀 및 전도 담당자 초청!!"

#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 집중훈련



**전도의 피가 흐르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듯이 목회와 교회의 생명은 전도입니다. 전도의 피가 흐르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심전도훈련원장 김기남목사)



**"와!! 이거다!!"**  
뜨거운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전도! 양육! 영성! 여기에 다 있습니다. 집중훈련에 와서 대박 맞았습니다. (다세울교회 오묘섭목사, 신에스더 사모)

**사/리/말/표/표/회**



**"교회 속속 성장...큰 교회 안부러워..."**  
전도가 재미있고 교회성장이 확인되었습니다. 30명에서 150명까지 1년만에 성장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손으로 땅을 갈았던 지금은 트랙터로 땅을 파는 생입니다. (한산양교회 최선자 사모)



**"시골 지하 개척교회도 전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을 통하여 교회가 잘 되고,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도하지는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탁월한 비결이 있습니다. (새문산교회 이희광 목사)



**"한 명도없던 성도, 30명으로 늘어..."**  
성도가 전혀 없던 상태에서 계획 5개월 만에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예심전도법은 전도와 목회의 자습서입니다. 맞춤형으로 적용하면 너무 쉽습니다. (대전 북동성경교회 이태일 목사)



**"교회 분위기가 바뀌고 전도의 날개들!"**  
우리 교회는 예심 전도대학을 개설한 후 안이던 전도가 되었고, 교회가 전도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전도가 재밌고, 전도의 날개를 단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남기동교회 오병준 목사)



##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

LA사랑의교회 주명수 목사 초청 집회

LA사랑의교회(김기섭 목사)가 김사 출신으로 현재 변호사와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주명수 목사(서울 밝은교회)를 초청,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영적 쇄신 집회를 개최했다.

주명수 목사는 11일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감방하라'(눅9장1-6절)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주 목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팡이, 자루, 빵, 돈, 신발 등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는 등 비합리적인 명령을 내리셨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냐면 예수님 외에는 어떤 기쁨도 찾지 말라는 의미다"라며 "사실 우리가 예수님 외에 어떤 갈망을 해서 안된다. 이게 훈련이 됐으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해도 된다.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는 속성이 있다. 돈, 명예, 지위, 사람 등에 집착할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남편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하

나님이 될 수도 있다.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목사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경계해야 될 것을 정리해서 설명했다. 그는 "1989년부터 코스타 강사로 있는데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많았다. 어느 순간 보니 그들이 나를 좋아하는 감정을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 각각의 레크리에이션을 즐겼던 것이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니 평안을 얻었다"고 했다.

또 그는 "우리의 의지가 도덕적인 선에서만 기쁨을 찾아선 안된다"며 "금식, 교육, 봉사 등 도덕적인 선에서만 기쁨을 찾으려면 겸손해졌다는 것에서부터 은근히 고만해지기 쉽다"고 말했다.

주 목사는 초자연적인 선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바울에게 방언, 환상, 통역,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며,

"병 고치는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따라오는 거다'라고 잘못 생각하기 쉽다. 그러다 하나님의 스케줄을 사유화해서 부패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성도가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라며 "근데 이것이 잘못되면 설교 자체만 즐길 수 있다. 그러면 특정 설교자만 선호하게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기쁨을 얻으라.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차원으로 올리면 안된다"고 당부하며 설교를 마쳤다.

주 목사는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해 '하나님의 쌍갈잡이 군사'라는 별명을 가졌다. 미국에서 사우스웨스턴캘리포니아대학교 법대를 나왔다. 저서로 '할렐루야 변호사', '시장터 영성', '복음을 지켜라' 등이 있다.

토마스 멩 기자

## KAPC 서가주노회 노회장에 정중윤 목사

"고난에 동참하고 화평을 도모하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서가주노회가 13일 나성열린문교회(박현성 목사)에서 제37회 정기노회를 개최, 신임 노회장에 정중윤 목사를 선출하고 신임 임원을 구성했다.

신임노회장 정중윤 목사는 소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 동역자들과 함께 협력해서 나아가는 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임원은 부노회장 오요한 목사, 서기 성요셉 목사, 부서기 정우성 목사, 회의록서기 박근덕 목사, 부회의록서기 권희창 목사, 회계 노승호 장로, 부회계 임

정렬 장로로 구성됐다.

서가주노회는 이날 목사 30명, 장로 5명 등 총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목사 18명, 교회 9곳을 회원으로 받았다.

앞서 개최예에는 이창우 목사의 사회, 손윤길 목사의 기도, 정중윤의 목사 설교, 조해환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정중윤 목사는 '팔복'(마5:1-16)이라는 제목을 통해 "가난한 마음을 통해 주님을 모실 수 있다"며 "화평을 도모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노회가 되도록 힘쓰자"고 설교했다.

토마스 멩 기자



정중윤 목사가 노회장에 선출된 후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 OC교협 부활절 연합예배 베델한인교회에서

1세와 1.5세, 2세들이 연합하는 부활절 예배로

올해 오렌지카운티 부활절 연합예배는 베델한인교회(손인식 목사)에서 내달 8일 새벽 5시에 OC기독교교회협의회(영민 회장)와 OC목사회(신종은 회장), 기독교전도회연합회(손찬우 회장)가 연합해 공동 주최한다.

영민목사는 "그동안 부활절 연합예배는 소수만 참여해 부활절 연합이라는 의미가 퇴색된 것이 사실이다. 이번 부활절은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모든 성가대가 참여하는 부활절을 만들기 위해 사전 모임을 가졌다. 이에 1.5세, 2세 목회자와 협력해 OC 지역의 모든 세대들이 참여하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기획하고 있다"며 "또한 이번 연합예배는 모두

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기회로 삼기 위해 헌금 전액을 OC 지역에 있는 캠퍼스 선교단체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예배의 설교는 열바인침례교회 한종수 목사가 맡고, 찬양은 1세와 1.5세, 2세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찬양으로 베델한인교회와 열바인침례교회,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나침반교회 등 많은 교회 성가대가 참여하며, 남북의 평화통일을 비롯한 탈북자들을 위한 특별 기도시간도 있을 예정이다.

문의: 백낙균 총무 714-603-9827

빅터 박 기자

## 하루 7시간동안 미디어에 노출되는 자녀들

중독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

지난 18일 주일 오후 세리토스장로교회(김한요 목사) 교회학교에서는 미디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자녀들을 위해 '미디어 중독 예방 학부모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사는 이 교회 협력선교사로 있는 다니엘 변 목사가 맡았다. 변 목사는 현재 OURS 목회("Real change happens when mine and yours becomes OURS")를 통해 방황하는 미국의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사역을 하고 있으며, 현재 미주복음방송(AM1190)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3시까지 "밤 먹었니"라는 코너를 통해 부모들과 상담을 하고 있다.

변 목사는 세미나에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아이들이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와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미디어 앞에서 한번 무너졌을 때 생기는 영적 죄책감과 무기력함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폭력적인 게임, 컴퓨터, 텔레비전, 스마트

폰, 유튜브 등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정도이고, 18살 미만의 아이들이 검색하는 용어 탑 5에 'sex'와 'porn'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대책이 뭘까?"라고 물었다.

이어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다. 예로, 아이들이 새벽에 일어났을 때 부모님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침에 일어나 신문 보는 대신 성경을 읽고 가능한 한 대화의 시간과 폭을 넓힘으로 자녀와 부모와의 간격을 좁히며 특히 가족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 준다면 천 번의 잔소리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답했다.

세리토스장로교회는 이 세미나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25일 주일예배 후에 Online Filter Program을 설치하는 부스를 교회학교에 마련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다니엘 변 목사가 미디어 중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노트북이나 컴퓨터, 각종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가져 오면 교육부에서는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필터링해 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무료이지만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경우 설치비 7불이 든다.

한편, 이 필터링 프로그램은 웹사이트(www.x3watch.com/x3watchfree.html)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빅터 박 기자

## 한인단체들, 탈북자 복송 절대 반대!!!

최근 중국에서 불잡힌 탈북자들을 복송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LA 한인단체에서 탈북자 복송 반대 기자회견을 16일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북한자유인권시민연대 LA지회, 국토방위군안보부지원사령부, LA한인회, 대한민국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협의회, 남가주교회협의회, 제미남가주이북도민총연합회, 베델한인교회, 나성서부교회, 미주3.1여성동지회, 한미친선연합회, 6.25참전용사회는 20일 오후 2시에 LA 중국영사관 앞에서 탈북자

복송반대시위를 연합해서 열기도 했다.

미주3.1여성동지회 박은숙 회장은 "우리 혈육이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며 "이번 시위를 통해 우리 한민족 동포들이 북한에 있는 혈육에 대해 무감각한 것을 깨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매주 목요일에 LA 중국영사관 앞에서 단체마다 돌면서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또 탈북자 복송 반대를 호소하는 편지를 한국 이명박 대통령, 미국 오바마 대통령, 중국 후진타오 주석 앞으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토마스 멩 기자

## 2012년 KAPC 서부지역

# 목사장으로 기도회

하루 24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서부지역 목사 장로님들께 문안드립니다.

국내적으로 경제의 위기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국제적으로 지진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환난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분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일이라 확신합니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찾고 의지할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금번 서부지역 목사 장로 기도회에 임하리라 믿으며 초대합니다.

- 주제: 영성의 성장
- 일시: 2012년 3월 26일(월)~27일(화) 오후 7시
- 장소: 충현선교교회 (담임 민종기 목사)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회비: 무료  
주강사: 서삼정 목사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연락처 김요섭 목사 (213) 215-8523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주최: KAPC 교육부  
주관: 가주 남가주 로스앤젤레스 서가주노회

준비위원장 김요섭 목사 부위원장 오세훈 목사 총무 정병노 목사 서기 홍성중 목사 회계 임성수 목사

# 1세와 2세 한국어 찬양으로 하나되다

## “섬김” 주제로 Youth Worship 행사 열려



1세와 2세 한국어 찬양으로 하나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사진 가장 우측이 노형건 단장.

2세들이 1세들과 한국어로 함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꿈을 품은 지 24년. 이 꿈이 드디어 미주평안교회(송정명 목사)에서 지난 17일 오후 '섬김'이라는 주제의 'Youth Worship' 행사로 이뤄졌다.

이 꿈을 꾀던 사람은 글로벌메시아여성합창단 노형건 상임지휘자다. 이날 행사는 글로벌메시아미션(대표 송정명 목사) 주최와 글로벌메시아여성합창단 후원으로 오페라캘리포니아소년소녀합창단(Opera California Youth Choir, 단장 노형건, 이하 OCYC)과 오페라캘리포니아소년소녀합창상블(Opera California Youth Ensemble, 이하 OCYE)이 대부분의 곡을

한국어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뜻 깊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집회에 앞서 한 관계자는 "이 집회는 글로벌메시아여성합창단에서 1세가 2세를 섬기는 가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 집회는 찬양만이 아닌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다"라고 전했다.

설교에 송정명 목사는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모든 악기로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송 목사는 "본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 할렐루야로 끝이 난다.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 "한국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없었고, 유명한 LA필의 음악감독 구스타포 두다멜은 베네수엘라 빈민가에서 자라나 음악을 통해서 지금의 자리에 서게 됐다. 우리 2세 중에서 미국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꾼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며 설교를 마쳤다.

집회의 사회는 노형건 단장과 조유리 학생이 맡았고, 대표기도는 제시카 손 양이 맡았으며, 헌금기도와 축도는 송정명 목사가 맡

았다.

축도 전 이들은 함께 더 많은 2세들이 이중언어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합심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성우 목사(성시화운동본부 상임본부장)는 광고 시간을 통해 "OCYC 학생들이 오는 7월 12박13일동안 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박희민 목사)에서 후원하는 '고국체험학교'를 통해 전국에 있는 큰 교회나 중고등학교 수련회, 대학교에 가서 오늘과 같은 찬양예배를 드릴 것이다"라고 전하며, "이번 한국방문을 통해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메시아여성합창단은 북가주, LA, OC, 사우스메이 등 4개 지역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고, 이들을 합쳐 부르는 용어가 글로벌메시아여성합창단이다. 지난해 2월에 북가주 메시아합창단이 창단되었고, 8월 남가주 메시아합창단이 창단됐다. 그리고 10년 전 창단된 사랑여성합창단이 LA 메시아합창단으로 변화됐다.

OCYC는 1991년 노형건 단장에 의해 LA에서 창단됐고, 그간 자라나는 미주 한인 2세들에게 한민족의 긍지와 올바른 믿음을 심어주고 백인과 흑인, 히스패닉 등 타민족과 찬양을 통해 교류해 왔다. 이 단체는 내달 1일 주일 오후 5시 세리토스연합감리교회(미국인교회)에서 '헨델의 메시아' 합창 공연을 하기도 한다.

빅터 박 기자

# 가장 악질 간수가 회개하니 죄수 1600명이 복음 들어

## 남가주사랑의교회 새생명 축제



교도소 사역의 대명사인 박효진 장로가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어느덧 화사한 꽃들과 함께 새 생명이 싹트는 봄이 우리 가운데 왔다. 이에 맞춰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도 새가족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고자 교도소 선교로 유명한 박효진 장로(소망교도소 부소장)를 초청, '2012 새생명 축제'를 '담장너머로 뻗은 나무'라는 주제로 지난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주일까지 개최했다.

집회 중 지난 16일 첫 집회에서 박 장로는 에스겔 36장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래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간증했다. 박 장로는 "나는 처음 1987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운을 떼며 "청송감호소는 대한민국 최고 악질들만 모아 놓은 곳이라 내가 악해지지 않으면 안돼 난 교도관 중에 최고로 악한 교도관으로 통했다. 그런 나를 변화시키셔서 최고 악질 죄수 한명에게 진정으로 눈물로 무릎꿇고 회개하게 하셔서 그 죄수도 변화돼 이를 통해서 1800명 중 1600여명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했다. 그래서 이들이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게 낙이었는데 이제는 간수들도 쉬

여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예상일이 됐다. 후에 그들이 청송감호소가 생명의 도장이 되도록 기도해 왔는데 난 안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기도하니 정치적 이유로 청송감호소가 없어지고 청송직업훈련소로 바뀌었다. 법사에 '그래도'를 항상 넣어서 살아 보라.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기쁠 때, 가정불화가 있을 때 그래도 기도하라"며 간증을 마쳤다.

박 장로의 간증 후에는 고석찬 선임목사의 인도로 인도자와 새가족이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도 시간에 고 목사는 "가장 가까운 가족의 관계가 깨진 모습 많이 봤다"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물어주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 먼저 무릎꿇고 손을 내밀면 그 깨진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라며 기도를 인도해 많은 이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

집회의 일시는 1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17일 토요일 오전 6시 20분, 오후 7시, 18일 주일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였다.

빅터 박 기자

# 찬양하며... 춤추며... 한인 히스패닉 연합회

## 킹덤빌더즈-Shiloh Tabernacle-히스패닉 목회자 연합집회



LA의 부흥을 사모하는 이들이 민족과 언어를 초월해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시149:3)"

킹덤빌더즈미니스트리(전두승 목사)가 시티하베스트교회에서 10일 오후 2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히스패닉 목회자들과 성도들

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집회를 개최했다.

이 집회는 킹덤빌더즈와 Shiloh Tabernacle, 히스패닉 목회자들이 연합해 열렸다.

저녁에는 찬양 및 치유 모임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은 춤을 추

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특히 한인, 히스패닉, 흑인 등이 한 자리에 모여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화합의 장이 됐다.

11.11.11 로즈볼대회 한인 코디네이터였던 전두승 목사는 "히스패닉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한인 교회와 히스패닉 교회가 연합하면 캘리포니아와 LA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올 것이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다"고 했다.

또 전 목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한 히스패닉 목회자는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쓰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쓰신다"며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큰 일을 행하시길 원

하신다. 우리 모두 주의 은혜를 사모하자"고 외치며 뜨겁게 모임을 이끌었다.

한편, 로즈볼대회 이후 한인들과 타 민족간의 연합 집회가 LA 지역에서 부쩍 늘어났다.

15일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김슨 극장에서 할리우드를 위한 통곡기도회가 연합으로 열렸고 이 자리에도 한인들이 대거 참석해 타민족들과 연합한 가운데 미국과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

또 오는 9월 11일에는 2만5천 명이 모이는 LA스테이플센터 대집회가 다민족 연합으로 열릴 계획이다.

문의: 3407 W. 6th St. #807, Los Angeles, CA 90020  
전화: 626-372-5151

토마스 맹 기자

# LA 68기 두란노 아버지학교 개최

##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LA 두란노아버지학교(미주본부장 주창국 장로) 제68기 교육이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주제로 LA온누리교회에서 지난 17일, 18일 열렸고 24일, 25일 오후 5시부터 10시 30분까지 있을 예정이다. 회비는 120불이다.

아버지학교는 1995년 10월 두란노서원에서 개설되었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바로 가정의 문제이며 가정의 문제는 바로 아버지의 문제라는 인식 위에 올바른 아버지상을 추구하며 실추된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잘못 행사되고 있는 아버지

의 권위를 바로잡으며, 아버지 부재의 가정에 아버지를 되돌려 보내는 목적으로 세워졌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개설이 되어 참석자도 주로 기독교인들이었지만, IMF 이후 아버지학교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비기독교인 참석자도 급증했다.

미주 아버지학교는 200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8기를 맞고 있다. 한편, 내달 16일, 17일과 23일, 24일 세리토스장로교회(김한요 목사)에서 제 29기 어머니학교가 개최된다고 전했다. 문의 213-382-5454

빅터 박 기자

# BAK KUNG KOREAN B.B.Q

**백궁은 최상급의 고기와 최고의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b>런치 스페셜</b>	<b>\$7<sup>99</sup></b> 고등어+된장 이면수+된장 잡채+된장+된장 오징어+된장 김치전골	<b>\$5<sup>99</sup></b>	<b>\$6<sup>99</sup></b>	
	<b>A \$9<sup>99</sup></b> Lunch Only 11am-5pm 차돌 소스삼겹살 소불고기 닭불고기 매운양념닭갈비 오징어 쭈꾸미	<b>B \$13<sup>99</sup></b> 차돌 소스삼겹살 소불고기 닭불고기 돼지고기 돼지껍데기 매운양념닭갈비	<b>C \$16<sup>99</sup></b> 갈비탕 육계장 내장탕 <b>B +</b> 돼지불살구이 LA양념갈비 LA생갈비 허밀구이 왕새우구이(2인/10pcs) 스키구이(힘퐁)	<b>D \$22<sup>99</sup></b> 돌솥비빔밥+된장 <b>C +</b> 꽃살 (2인/10 pcs) 양념왕갈비 왕갈비 양줄구이

소주 소주1병 \$6<sup>99</sup>

3700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19  
**323.734.9292**

# “말씀과 삶에 괴리 있으면 안돼”

### 남가주한인목사회, 장영춘 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 개최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영대 목사)가 뉴욕 퀸즈장로교회 장영춘 원로목사를 초청, 목회자 세미나를 19일 오후 5시에 한미장로교회(이운영 목사)에서 개최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장영춘 목사는 이날 38년의 이민목회 경험을 되돌아 보며 세미나를 이어갔다.

장 목사는 우선 목회자가 하나님 앞과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가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인정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세상의 어떤 지식과 철학을 더하지 아니하고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한다”고 했다.

장 목사는 “음식의 맛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양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요즘 다른 목회자들의 방송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인식 시인적 수필인식 분간이 안될 때가 있다. 무공무진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믿고 해석하고 교육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의 실력자가 되면 성도들은 따라 온다”고 밝혔다.

그는 또 “목회자는 권위가 있어야 하며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남용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장영춘 목사가 남가주 지역 목회자들에게 이민목회의 노하우를 전하고 있다.

장영춘 목사는 “교회가 부흥하고 자리가 잡혔을 때 교인들이 새 차로 바꾸려고 권유했지만 5년 동안 바꾸지 않았다. 먼저는 하나님과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며 “목회자로서 말씀을 따라 살도록 노력할 때 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장 목사는 가정과 지역 사회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역 사회의 안 믿는 자들에게서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교회를 개척할 당시 식당에 가면 종업원을 잘 섬겼더니 나중에 교회로 찾아 왔다. 그리고 가족, 친척들 30여명이 전부 교회에 와 교인이 됐다. 목회자들이 교회 밖에서 예의를 지키면 전도의 문이 열린다”고 했다.

또 그는 목회자의 가정 문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갔다. 그는 “실교 말씀에 그 목회자의 사모가 큰

해를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삶에 괴리가 있으면 안 된다”고 권면했다.

마지막으로 장 목사는 “무엇보다 목회는 희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주크리스천신문 발행인이기도 한 장영춘 목사는 퀸즈장로교회를 개척하고 38년 동안 담임목회를 한 후 최근 원로목사로 추대됐다. 토마스 맹 기자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 나성서부교회 창립 40주년 장영춘 목사 초청 집회

나성서부교회(담임 이정현 목사)가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장영춘 목사(뉴욕 퀸즈장로교회 원로목사)를 초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춘계 말씀 집회를 15일부터 18일까지 개최했다.

교회 관계자는 “장 목사님은 말씀과 은혜로 이민 목회에 큰 부흥을 일으킨 분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은혜를 전해 주고자 집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4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신분이 변화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을 깨달았다. 또한 목사님의 오랜 신앙의 체험으로 그 삶에 간증해 주니 성도들이 더 은혜를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17일 새벽 5시 30분 집회에서 장 목사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기초로 ‘예수를 바라 보자’는 제목으로 설

교했다.

장 목사는 “어떤 장로님과 차로 길을 가는데 출구로 나가야 되는 곳을 70마일이나 지나쳐 다시 돌아온 일이 있다. 또 어떤 목사를 심방 보냈는데 3시간 동안 해매다 못 갔다고 들었다. 이것은 다 묻지 않고 목표지점을 향해서 갔기 때문이다”라며 “이 세상에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만 바랄 때이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사랑의 대상이시며, 소망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예수에 미친 여러분 되길 바란다”고 설교를 마쳤다.

장영춘 목사는 이번 집회 기간동안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주일 오후에는 제직수련회를 열고 교회 지도자급 훈련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빅터 박 기자

# 유니온교회 화재, 교육관 전소 1백만불 피해



교육관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다.

13일 LA 동부 지역의 대표적 교회인 유니온교회가 화재로 인하여 약 1백만불의 피해를 입었다. 화재가 발생한지 1시간만에 교육관이 전소됐으나 새벽 시간이라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교회는 화염에 휩싸여 있었으며 불길이 커지자 추가로 소방대원이 투입됐다.

다행히 불길은 잡았지만 건물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여전히 사고 원인이 조사 중에 있다.

교회 측은 유스 부서가 주일 예배 때 사용하던 건물이 불타에 따라 임시로 예배처소를 본당으로 옮길 계획이다.

김영선 기자

# 동부사랑의교회 “당신은 예수님의 VIP”

### 이동원 목사 초청 새생명축제

매해마다 동부사랑의교회(박승규 목사)에서는 이맘 때면 초신자를 결단시키고, 기존의 성도들에게는 더욱 도전을 주기 위해 새생명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새생명축제가 ‘당신은 예수님의 V.I.P.’라는 주제로 내달 13일 금요일부터 15일 주일까지 진행된다.

교회 관계자는 “믿음으로 한 사

람이 세 사람의 대신자를 품고 기도로 준비해 주님 앞으로 인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번 집회의 강사인 이동원 목사님(지구종교회 원로목사)은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복음 설교가에게 많은 결단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집회 일시는 1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14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 오후 7시, 15일 주일 1부 오전 7시 30분, 2부 오전 9시 30분, 3부 오전 12시에 배 매이다.

한편, 이동원 목사는 코스타 국제 이사장, 한미준 대표, 성서한국 공동대표를 역임했고, 저서로는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 비전을 신과 내일로 간다, 역설로 살아가는 행복 등이 있다.

문의: 909-590-3722



이동원 목사 빅터 박 기자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약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갈릴리안신학대학 & 랭귀지스쿨**  
GALILEE SCHOOL OF THEOLOGY & LANGUAGE SCHOOL

목회학석사 (M.Div.) 신학석사 (S.T.M.)  
목회학박사 (D.Min.) 신학박사 (S.T.D.)

SEVIS인가 대학, 지체 1-20일행  
ESL 프로그램 (음성학적 영어학습방법론을 개발)

Tel. 213-746-1004 / FAX. 213-746-5004  
1000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 박용덕 목사, 뉴저지·뉴욕서 집회 가져

New Spirit Movement를 통하여 교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박용덕 목사(남가주빛내리교회)가 뉴저지 및 뉴욕 집회를 최근 열었다.

이 집회는 2일부터 4일까지 ‘축복의 MVP 영성’이라는 주제로 뉴저지섬기는교회(박순탁 목사)에서 열렸고, 5일부터 7일까지 ‘영으로 사는 자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뉴욕운광교회(최강인 목사)에서 열렸다.

특히 뉴욕 운광교회는 지난해 11월에 박용덕 목사를 초청해 집회를 열었던 교회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요청으로 다시 한번 집회가 열렸다.

문의: 714-401-9874(남가주빛내리교회)



박용덕 목사

토마스 맹 기자

## 2012 CHILDREN & YOUTH TEACHER CONFERENCE

### YOU WANT TO REACH KIDS FOR JESUS? WE WANT TO HELP YOU!

CYTC is the **only** conference designed for Korean-American ministry leaders for children of all ages, and is specifically designed for you and your church. Our **30 brand-new workshops**, and dynamic speakers, not only prepare leaders from nursery to youth with a **hands-on approach**, but also provide expert training in **VBS, praise and special events!**

### CYTC IS THE PERFECT PLACE FOR:

- Veteran teachers
- New teachers
- Pastors/Ministers
- Directors
- Volunteers
- Small Churches
- Large Churches

... Anyone serving or interested in ministry to nursery, preschool, elementary, preteen and youth kids!

### TOPICS COVERED:

- Vacation Bible School - 여름 성경학교**  
Get everything you need to run a thrilling and successful VBS at your church this summer
- Praise & Worship - 예배찬양**  
Learn newly assembled songs with lively motions, and also ways to lead powerful worship
- Sunday School Age-Level Ministries 교회학교 교사훈련**  
Gain practical advice and ideas for leading & impacting kids of all ages
- Parent-Teacher-Children Relations 부모/교사/어린이와의 관계**  
Develop strategies and insight for interacting with parents and various family backgrounds
- Administration - 교회학교 행정/운영**  
Organize your ministry with effective planning, systems and technology
- Tools & Resources 교회학교 교육/시정각자료**  
Boost your ministry with fun and creativity
- Ministry Challenges - 교사 소명과 사명**  
Discover ways to handle kids and situations of all kinds
- Special Programs 단기선교/ 캠프/ 전도프로그램**  
Expand your ministry potential with short-term missions and

### VBS & CYTC 교회학교 교사 컨퍼런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삶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성경말씀과 기도보다 컴퓨터와 셀폰 그리고 Gadget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통해 구원 받게하고 성경님의 인도 받으며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 할 해주는 일은 교회학교의 존재 목적이고 교역자들과 교사들의 큰 사명입니다.

\*VBS & Children, Youth Teacher's Conference 2012\*는 알차고 효과적인 여름 성경학교 준비와 실행시키는 캠프,수련회, 공을 키우는 단기선교 프로그램, 유아, 유치,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들의 훈련과 교육을 위해 준비된 실재적인 강습회입니다. 국제적이고 초교파적이며 복음적인 교사 교육의 전문 기관인 어린이전도협회에서 주관하는 강습회에 교사들을 읽고 보내주시시오. 최선을 다해 안내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어린이전도협회 한인지회 대표 이병현 선교사

### SUMMER CHILDREN BIBLE CAMP

DATE: 07/16/12 - 07/19/12  
PLACE: Bancho Young Christian Camp  
TARGET: 3rd - 6th Grade

### KWMC (KOREAN WORLD MISSIONS CONFERENCE)

한인세계선교대회  
DATE: 07/20/12 - 07/27/12  
PLACE: Chicago, Billy Graham Center, Wheaton College

\*자세한 스케줄을 원하시면 **CEFKOC.COM**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Registration Type	Early	Late
Individual	\$70.00	\$80.00
Group (10 or more)	\$60.00	\$80.00
CEF Mission Member	\$60.00	\$80.00

Please make check payable and mail to: CEFKOC  
P.O. Box 85756  
Los Angeles, CA 90072

<b>SF/ San Jose (CA)</b> 04/14/2012 (9AM-5PM) 뉴비전교회(담임 이진수 목사) New Vision Church 1201 Montezuma Expressway Milpitas, CA 95035	<b>Los Angeles (CA)</b> 04/21/2012 (9AM-5PM) LA 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성 목사) LA SaRang Community Church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b>New York (NY)</b> 04/28/2012 (9AM-5PM) 주사랑 장로교회(담임 이길호 목사) The Love of Christ Presbyterian Church 209-08 48th Ave. Boysie, NY 11384	<b>Philadelphia (PA)</b> 04/30-05/01/2012 (6PM-10PM) 영생장로교회(담임 이흥길 목사) Yong Sang Presbyterian Church 735 Summer St. Horseshoe, PA 19044	<b>Toronto (Canada)</b> 05/05/2012 (9AM-5PM) 큰빛교회(담임 최현수 목사) The Light Korean Presbyterian Church 5965 Professional Court Mississauga, ON, Canada L4W1Y3	<b>Orange County (CA)</b> 05/12/2012 (9AM-5PM) 남가주 사랑의교회(담임 고영환 목사) Orange County So-Rang Community Church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b>Seattle/Tacoma (WA)</b> 05/19/2012 (9AM-5PM) 단교마중중앙장로교회(담임 이병현 목사) Tacoma Central Presbyterian Church 8601 S. Pine St. Lakewood, WA 98499
--	---	---	--	---	--	---



# 2012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 가능)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 Fax: 562-926-1025 / www.ptsa.edu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85 / Fax: 310-793-2297 / www.cohenuniversity.ac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 Fax: 213-381-0010 / www.iruniv.org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 Fax: 818-435-2441 / www.myccu.us

**솔로몬대학교**  
 Solomon University, SU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 28:18-20)  
 학위: 신학 학사/석사/박사 (BA, D.Min, Th.D.), 교회음악, 문예창작  
 장학금 혜택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 Fax: 213-487-737 / www.solomonuniv.org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꾼들을 양성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 hjung3155@gmail.com

**국제비전대학교**  
 정시/수시: (Offline, Online 강의)  
 학위: 학사/석사/박사 (D. Min., D.Miss., Ph. D.)  
 I-20 발행, 각종 장학금 지급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293-5745 / 213-610-4989 / www.vision.edu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신학.철학 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 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3130 Wilshire Blvd #402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8-9800 / Fax: 213-384-7898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 http://korean.fuller.edu

**미주대신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A., CA. 90019  
 Tel: 323-731-981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4055 Wilshire Blvd #419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9-8987

**미주개혁신학대학교**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직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2706 Wilshire Blvd. 1st Floor, Los Angeles, CA 90057  
 Tel: 213-736-6500 / Fax: 213-736-6504 / reformeduniv.org

**아메리칸 신학대학 및 대학원**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2-7356 / Fax: 818-773-8868 / 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하나님 앞에 섰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Tel: 562-869-7497 / www.mcuniversity.org

**바울성경대학**  
 말씀을 개혁주의 신학안에서 바르고 깊이있게,  
 성경 66권 전체를 공부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언제나, 오실 수 있습니다.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Tel: 562-394-3342 / paulbiblecollege@gmail.com

**윌클리프대학교**  
 Wyclif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는  
 개혁적인 신앙과 바른 성서해석을 가르쳐  
 어두움을 밝히는 지도자, '개혁의 새벽별'  
 존 윌클리프 같은 개혁자를 길러낼 것입니다

14631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604  
 Tel: 562-777-7078 / www.wyclifuniversity.net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 www.aeuu.org

*Solution for Tomorrow*

**LASERVISION WORLD**  
 www.laservisionworld.com

**부활절 특별행사를 위한 무선마이크**

**조명 스테이지 렌탈해 드립니다**

**Customized Solution**

\*컨설팅부터 시스템 설계, 시스템 시공, 감리, 교육 및 정기점검까지  
 One Stop Solution을 제공하는  
 - Total System Integration

\*최신 HD 레코딩 장비를 갖춘 넓고 조용한 Recording Studio를 기반으로 한  
 - Music Production

\*최신 HD 영상 장비를 갖춘  
 - Digital Film/Video Production

\*최신 장비로 무장한 라이브 음향 영상 조명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 Live Production 까지

Laservision World에 오시면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전문 음향, 영상, 조명의 Total Digital Custom Solution을 제공 해드립니다.

Laservision World만이 드리는 다음과 같은 장점

1. 풍부한 방송 System 시공 및 컨설팅 경험이 있습니다.
2. 20년 동안 미주 한인 사회와 함께 자라온 안정된 회사입니다.
3. 음향 / 영상 / 조명에 관한 토털 디자인 서비스를 통해 경비와 시간을 최소화시켜드립니다.
4. Supervising System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System Integration을 진행합니다.
5. 유지관리 비용을 절약하여 드립니다.
6. 에너지 절감 디자인을 최우선시 합니다.
7. 시공 후 Training과 Service 를 통해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8. 일에 필요한 License와 책임에 관한 Insurance & Liability를 갖고 있습니다.

Laservision World / Laservision Structure & Engineering Inc. / wwori.com / AVLgear.com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Tel: 323-730-5050 Fax: 323-383-0257 contact@laservisionworld.com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EM)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에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

**갈릴리션교회**  
만민으로 그물을 던지라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 735-6412 / g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장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찬양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시편받고 사랑받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228-9540 / F.(714) 521-4636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아면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909) 268-4279 / gwchurch.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00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후 1:00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323) 254-4012 / gkpcchurch.com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30 금요 찬양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310) 973-7429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제자기도회 오후 7:30 **김재을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자녀기도회 오후 7:00 (말-토)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6:00 (말-토)  
청년·대학부 주일예배후

**나성소망교회**  
제자사역, 건강한중령교회, 행복한가정

4063 Ingraham St., Los Angeles, CA 90005  
T.(213) 550-7377 / lahope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말-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말씀이 살려 나서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323) 913-4499 / F.(323) 913-4494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EM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213) 413-1600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제자예배 오후 7:30 **정우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화-금)  
장성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6:30 (말-토)  
오전 10:30 (수)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사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213) 598-0191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714) 680-9556 / F.(714) 680-6418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213) 215-8523 / socrdm.org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5:30 **박용덕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일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제자예배 오후 8:00 **박혜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EM예배 오전 10:00 오전 6:30 (토)  
유치,유년부,중고등부 오전 11:30

**남가주헬로십교회**  
온전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 나아가는 교회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909) 397-5737 / nfcus.com

**김승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마리 진 선교사**  
수요일 오후 7: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뉴월드임마누엘교회**

1234 W. 7th St., Los Angeles, CA 90017  
T.(909) 993-4842, (909) 993-2157

1부예배 오전 8:00 한양찬양예배 오후 1:00 **최성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EM/Youth에배 오후 12:00 오전 6:00 (토)  
AWANA 오후 12:3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매일 마지막주)

**늘푸른선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 92806  
T.(714) 632-9191, 9192 / missionway.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45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홍장로교회**  
찬송이신 주여 나를 고치소서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 오후 8:00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중고등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청년토요일예배 오후 6:00

**둘로스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주님과 사역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이성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626) 793-0880 / F.(626) 793-6412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30

**라브레아커뮤니티교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사 40:31)

1069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19  
T.(323) 930-1088 / F.(323) 930-0788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손인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내기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이 임하셨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949) 854-4010 / F.(949) 854-4018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학생예배 오후 12:00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93003  
T.(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한국어 학교 오전 9:30 (토)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15617 Burwood Rd., Victorville, CA 92394  
T.(760) 220-3263, (760) 542-9366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 교회 및 선교회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 신교와 구제의 삶으로 실현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562) 690-9800 / F.(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8:0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내가 살구나마의 가치를 보아이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310) 793-2297 / F.(310) 793-2298

1부예배 오전 7:30 5부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EM예배 오후 12:15  
3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12:15 새벽예배 오전 5:45 (말-금) / 6:00 (토)

**세리토스장로교회**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세상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T.(562) 860-5451 / iloveccp.org

**김수철 담임목사** 찬양 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  
(다문터문 4기 Crocker St.)  
1부 가리예배 오전 7:00  
2부 새벽예배 오전 9:30

**소중한사람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1856 W. 11th Place, Los Angeles, CA 90006  
T.(213) 385-4515 / F.(213) 385-5474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박상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시온성중양교회**  
은혜, 사랑, 선교로 복음의 빛을 비추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714) 995-2868 / F.(714) 995-0169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말-토)  
EM예배 오전 10:00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213) 389-0691 / F.(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 오후 7:00  
3부예배(EM) 오후 2:00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 810-3455 / F.(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한중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30 열린예배 오후 7:30 (수)  
4부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오후 7:30 (매일 둘째 금)

**얼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949) 857-9425 / F.(949) 857-9472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일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후 1:30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213) 291-5901 / (714) 833-2568

1부예배 오전 8:00 **김혜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323) 732-7356 / C.(818) 993-357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토)  
수요일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714) 893-1652 / kccrcc.com

**정상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 오후 7:30  
수요일 오후 7:30 수요일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요셉선교회**

2728 James M wood Blvd, LA, CA 90006  
T.(213) 245-4090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11:45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714) 446-6200 / F.(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11:45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금)  
오전 7:30 (토)

**임마누엘선교회**  
성령을 따라 (갈5:16)

1818 S. Western Ave., #200, LA, CA 90006  
T.(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310) 325-4020 / F.(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금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말-토)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213) 749-4500 / F.(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호를, 소 친 초 정신의 호를, 바른교회인의 호를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323) 667-9920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회**  
서로 사랑하라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choonghyun.org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침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금) **성현경 담임목사**  
스페인어 예배 오전 10:00 오후 6:00 (토)  
한국어 오전 10시 (월-우주일) 수요일 오후 7:45  
오후 12:30 (분당)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626) 795-6252 / F.(626) 584-6544

결혼교실, 시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김철민 장로**  
www.GodFamily.com  
www.CMF.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 493-0191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김기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50 새벽기도회 오전 5:25 (말-금)  
3부예배 오후 12: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  
4부예배 오후 2:22

**LA사랑의교회**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213) 386-2233 / F.(213) 386-2243

“강을 건너 세계로, ‘사람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성감의 사람들’이 되자” **박세록 대표**  
www.samcare.org

**SAM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 92833  
T.(213) 447-8169 / F.(213) 381-1506

# 기도는 신학자의 길 이론으로 학생 머리만 키울텐가

신학자의 영성생활은 어떤가

A신학교 K교수는 새벽 6시에 눈을 뜬다. 새벽기도를 갔다 돌아온 아내가 그 때쯤 그를 깨우기 때문이다. 아내는 함께 새벽기도를 나가자고 자주 투덜댄다. K교수도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몸이 좀체 따라주지 않는다. 아침을 먹고 집을 나와 학교에 도착하면 8시, 얼른 수업 준비를 하고 강의실로 향한다. 오늘도 수업에 수업이 이어진다. 학생수에 비해 교수가 적어 늘 벅하다.

영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깔려 있다. 책을 탐독하고 논문을 분석하는 것과 같은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령을 간구해야 할 그들이, 단순 '학문활동'에만 전념한다는 얘기가. 성경대 배본철 교수(교회사)는 "대부분 신학대 교수들의 교회 활동은 미미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 철저한 자기 관리와 기도 필요해

물론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 배 교수는 "학교 일에 전념하다 보면 교회 사역에 동시에 힘을 쏟기 어렵다. 고된 연구과제와 강의, 그리고 학교업무 등으로 인해 영성생활에 부족함이 많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신학자들이 영성생활을 깊이 하지 않으면, 그가 전하는 학문은 다 신학생들의 머리만 키우는 것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신학교육이 이론과 실제를 병행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 신학자들이 실제 훈련의 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배 교수는 제안했다.

서울신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권혁승 교수는 "선교는 모든 신학의 근본"임을 믿는 신학자다. 그는 구약학자지만 마치 선교학자처럼 강의에서, 그리고 삶에서 항상 선교를 말한다. 최근 이스라엘 등지를 도는 '성지 순례'도 다녀왔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의 '땅끝'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신념 때문이다. 매일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는다는 그에게 '신학자의 영성생활'에 대해 물었다.

권 교수는 "신학은 학문으로서만 존재할 수 없다.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목회 현장에 적용될 때만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신학자도 목회자다. 단지 교회를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따라

저녁 6시, 퇴근할 시간이지만 K교수 예겐 며칠 안으로 끝나야 할 논문이 있다. 저녁을 대충 때우고 연구실 아늑한 불빛 아래서 깊이 가는 밤을 맞는다. 그래도 다른 날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내일은 K교수가 몸담은 신학회의 조찬발표회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런 세미나가 일주일에 많게는 서너 개다.

문제는 다음 주다. 심사해야 할 졸업한 학생들의 논문이 산더미다. 아내는 이번 주일 저녁 함께 특별기도회에 참석하자고 하지만 이번에도 주일에 배만 드러야 할 것 같다. 이런저런 고민 속에 K교수는 밤 12시가 넘어서야 눈을 감는다.

## 영성 함양은 선택 아닌 필수

신학대 교수들은 과연 얼마나 신앙, 혹은 영성생활을 할까. 신학이 신앙을 위한 학문이라면 그것을 연구해 가르치는 신학자들에게 '영성'의 함양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스스로 체계를 깨닫지 못한 지식은 신학이 아닌 일반학문에서도 인정받지 못한다. 어쩌면 신학자란 '뉘그러'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며 '차기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동시에 가지는, 목회자 그 이상의 자리일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신학이 교회를 떠났다"는 비판의 이면에는 "신학자들에게

# 동성애 적극 지지자 총회장 도전 논란 (PCUSA)

에드워드 목사 "중재자로서의 경험, 교단 위해 역할 할 것"

동성애를 찬성할 뿐 아니라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를 지지하는 그룹에 속한 목회자가, 올 여름 필라델피아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미국 장로교(PCUSA) 총회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PCUSA는 지난해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허용한 교단이다.

자넷 에드워드 목사는 "본인이 비록 LGBT 그룹에 속해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잘 조율해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총회장직에 출마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LGBT를 지지하는 More Light Presbyterian의 이사이기도 한 에드워드 목사는 "본인은 PCUSA의 총회장이자 많은 논쟁을 일으키는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인식할 뿐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성경의 구절을 놓고 다른 해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법을 익혀온 공동체들의 예는 셀 수 없이 많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에드워드는 또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룹들 사이의 대화를 수십 년간 지켜봐 온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제220회 총회의 총회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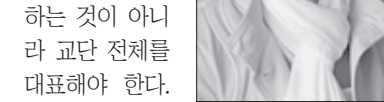
고 강조했다. 그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몇몇의 부르심과 같이, 이번 총회장으로서의 부르심 역시 깊으며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이 잘 알고 있다. 그 길에는 많은 도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나를 돌리키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교단을 가장 심각하게 분열시켰던 몇몇 논쟁 가운데,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해 온 자신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 목사 안수 논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교단을 위해, 자신의 이런 경험이 중재자로서 적절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 직책 이용해 동성애 옹호할 것... 반대도

에드워드 목사의 이날 발언은 그녀가 속한 피츠버그 노회가 그녀의 출마에 반대하는 투표를 한 뒤 한 달 만에 나온 것이다. 에드워드 목사와 같은 노회에서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는 셸던 소르지 목사는 "에드워드 목사가 총회장이 된다면 (동성애 안수 문제에 대한 양측의) 대화를 이끌어내기도,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동성애 지지) 입장을 옹호하게 될 것을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총회장은 교단 전체의 입장을 중재하고자 부름을 받은 직분이다. 이를 통해 편파적인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 에드워드 목사의 출마에 대한 논의의 대화는 존중할 만하며, 우리는 그녀의 사역과 은사에 감사함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에드워드 목사의 출마에 반대하는 이들은 피츠버그 노회가 지지하는 안수 문제에 대한 입장도 다른 기준을 지지하는 그녀의 기록을 참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220회 PCUSA 총회에 출사표를 던진 자넷 에드워드 목사

제219회 총회에서 PCUSA는 동성애자 안수를 허용한 바 있지만, 피츠버그 노회는 이를 허용하는 개정법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안수에 대한 기존의 법안을 변경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 소르지 목사는 스스로 LGBT에 속한다고 밝힌 이들에 대해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현희 기자

서 신학자는 언제나 목회자의 기도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목회자의 기본 중 가장 첫번째가 바로 새벽기도다. 그렇다면 신학자 역시 적어도 새벽기도는 빠지지 말아야 한다. 신학자는 기도를 통해 목회적 자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게 신학자가 사는 길이다. 가슴이 매마른 신학자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론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신학자의 대표적 모델이자 신

학의 출발점은 사도 바울이다. 우리는 그를 선교사나 목회자, 혹은 성경의 저자 정도로 알지만 그는 신학자이기도 하다. 지난 2천 년 동안의 신학은 결국 바울의 가르침을 해석한 것이다. 신학은 바울을 넘지 못한다"며 "그래서 바울은 신학자의 표상이다. 그런 바울은 일평생 교회를 위해 살았고 목양에 목숨을 걸었다. 우리가 신학의 자료로 삼고 있는 그의 편지는 모두 교회에 보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데도 현실에선 '편지'의 수준을 한

참이나 넘어선 논문과 신학책이 즐비하다. 팜택대학교 신현수 교수(신약학)는 "이른바 전문성 때문에 신학자들은 목회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쓴다. 사변적인 서양신학을 비판없이 따르는 태도도 문제"라고 했다. 앞서 권혁승 교수의 말대로 지금의 신학이 바울을 넘어, 곧 교회 위에 존재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신 교수의 지적처럼 서양신학자를 쫓다 바울을 놓친 건 아닌지, K교수로 살아가는 모든 신학자들이 다시금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다.

김진영 기자

# 당뇨,고혈압,고지혈,부인병 및 힘든 질병에서 빠르게 증상 개선시키는 청 한의원

## 대단히 놀랍고도 빠른 효능의 특수침술,특수진맥

**이번주 강의: 당뇨,고혈압의 합병증에서 빠르게 대처해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심각하고도 위험한 상태에 이를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초기에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에만 의존하다 눈이 안보이거나 신장투석 다리절단과사, 심장병,뇌경색 중풍 치매등으로 고생하다 무척 힘들게 되는데 어느정도 약을 줄이거나 벗어나야합니다. 왜냐하면 약은 빠른증상개선으로는 좋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혈관이 막히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몸의 중요장기인 뇌,눈,심장,신장 및 손,발등 중요한 부분의 파손환이 안좋아져 무섭게 망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나이가 40살 정도인데 당뇨가 생긴지 2년정도인데도 눈이 안보여서 본원에서 치료 3개월후 눈이 어느정도 보이게 됐고 당뇨수치가 어느정도 잡혀서 안도의 숨을 쉬지만 당뇨 합병증을 생각보다 무척 힘들고 그 고통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본원에서는 자연의 요법으로 약에서 어느정도 벗어나서 수치가 어느정도 정상이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당뇨,고혈압은 평생토록 관리 조절을 잘해야합니다. 재발할수있기 때문에 완치는 안되지만 약에서 어느정도 벗어나야 그리고 줄여서 합병증에서 벗어나야합니다. 본 한의원에서는 특수침맥과 특수침술을 통해서 오래된 통증을 믿기힘들 정도로 빠르게 수 분 정도에도 통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됩니다. 아울러 약해진 장기의 균형을 도와주어 합병증 및 통증에서 벗어나게끔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게 도와드립니다. 올바른 가르침, 준비된 생활로 건강도 올바르게 살아가야합니다.

**특별 절호의 기회!**  
놀라운 당뇨 신선단 2병 사면 2병 FREE!  
**당뇨병에 희소식!!**



**왜 당뇨신선단이 좋은가?**  
더 자세한 사항은 [www.shinsundan.com](http://www.shinsundan.com)을 참조  
24시간 주문전화 714.636.1412

**청 한의원의 상상하기도 현실의 세계에서 믿기 어려운 빠른효과의 특수침술은 과연 무엇인가..**

1.예) 70대 바라보는 LA인근에 사는 김 선생은 허리통증으로 너무나 아파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본원에 와서 침을 맞은지 불과 2~3분도 채 안되서 그 즉시 그 괴로운 통증이 사라지니 정말 믿을수가 없다. 신기하다.정말로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친구에게 그 상황을 얘기한즉 아무도 믿기 어렵다 말한즉 3주가 지난 이후에도 통증이 없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신기해하는 모습이었다.

2.예) 50대 남성으로 오렌지카운티에 사는 강 선생은 오십견으로 팔을 들거나 움직일때 너무나 고통스러워했고 한 6개월 정도 고생으로 여러 별별치료를 다 했으나 계속 아파서 본원에 와서 치료후 5분도 안되서 그 통증이 사라지고 자유자재로 그 즉시 움직이니 현실의 세계에서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있나 믿기지않아했고 정말 꿈을 꾸는 것 같다고 말을 하였습니니다.

3.예) 70대의 할머니 엉덩이부터 땀기고 발끝까지 아파서 좌골신경통 및 알수없는 통증으로 2년이상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다 정말 남들이 2~3분 정도후에 통증이 사라진다는 말을 듣고 그냥 방문 그런데 5분도 안되서 그 오래된 통증이 사라지니 이것은 상상으로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감탄하시며 뒤돌아 가면서 감사해하는 모습이었다.

4.예) 젊은 학생이 6개월정도전에 다리를 다쳐서 심하게 아파서 붕대를 감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온갖치료를 했으나 큰 진전이 없어 통증을 호소하는바 침을 놓은지 5분도 안되서 그 통증이 사라지고 자유자재

로 무릎을 움직이니 어떻게 이런일이 이 세상에 있다니 말하면서 Amazing이란 말을 계속 연거푸 말하고 있었다.

5.예) 60대 후반의 여성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배부위의 통증으로 무슨 큰병이 아닌가 걱정하면서 내원한바 침 시술후 3분도 안되서 그 통증이 사라지고 없어졌으니 남편도 지켜보면서 정말 눈으로 보면서 믿기가 힘들고 상상으로 이해가 안간다고 너무나 감사해했습니니다.

6.예) 80대의 할머니가 당뇨,고혈압,고지혈로 여러 알약을 복용하던 중 내원한바 본원에서 3개월 정도 치료후 모든 알약을 다 끊고도 수치가 정상이 되니 가족도 놀라와하고 병원에서 믿기 힘들다고 의아해 했다고 말하면서 그저 주위사람들이 놀랍고도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7.예) 4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당뇨를 앓은지 2년정도인데도 눈이 안보이고 Insulin 70Unit맞으면서도 400~500정도 당수치가 나오고 몸은 너무나 말라서 보기가 힘들정도이고 발바닥은 가죽처럼 찢겨져 있었고 살을 포기한 모습으로 내원한바 본원에서 3개월 남짓 치료후 눈이 어렴풋이 보이면서 Insulin 40Unit 맞으면서도 당이 100정도 내려오고 몸에 살이 붙으면서 발바닥도 보드라워져서 이 기쁨은 천하를 바꾸어도 누릴수 없는 행복이라고 감사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청 한의원 714 636 1412 (24hrs) 714 349 7995 (213)385-5833**  
9355 Chapman Ave. #108 Garden Grove, CA 92841 3003 W. Olympic Bl. #201, LA, CA

## 부모의 자녀교육 권리를 위하여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안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긍정적으로만” 동성애와 성전환자에 대해 옹호하는 교육을 받게 하는 것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발의안입니다. 2003년 매사추세츠 주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한 후, 킨더가든에 들어간 아이가 동성애 가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책을 집으로 가져와 부모에게 말하기에 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가르칠 때에는 부모에게 통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단호하게 거절 당하였습니다. 그 부모가 계속 자녀보호의 권리를 주장하자 결국 아버지는 수감에 채워져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학부모의 자녀교육 권리(PRE)는 부모의 교육할 수 있는 권한,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빼앗아 간 것으로부터, “부모의 권리보호” “학생보호”를 다시 가능하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혹시 잘못된 내용이 수업에서 가르쳐진다면, 부모는 자신의 가치관, 신앙에 의하여 자신의 자녀를 사회과학, 역사학 시간에 수업에서 빼내 올 수 있다는 “부모 권리 보호법안”인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 후반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가르치고 모든 교과서에서 동성애를 위한 긍정적인 교육을 시키도록 허락하는 SB48을 저지시키는데 실패하였습니다. 504,760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약 7,000표가 부족하여 그 법의 시행을 허용하여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Stop SB48 운동을 통하여 우리는 신자들의 결집된 힘이 중요한 공적인 법률을 세우기도, 폐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많은 미국 시민들은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가르치는 상원발의안 SB48을 저지할 뿐 아니라, 더 크고 포괄적으로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발의안,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권리 보호”(PRE: Parental Rights in Education)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발의안에 많은 캘리포니아 미국 시민들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한인사회도 열심히 지금 서명운동에 참여하여야 할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PRE 서명용지는 웹페이지에서 받아서 서명할 수도 있고, 또한 교회에서 손쉽게 서명할 수도 있습니다. 발의안에 필요한 서명은 504,760명이지만, 넉넉히 승리하기 위하여 유권자 등록을 하신 분이 65-70만명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주관하는 단체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운동하여 온 Christian Coalition이라는 단체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에 가시면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교회의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기독일보

편집장: 박희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이인규 편집국장: 토마스맹  
지사망: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213) 739-0403  
팩스: (718) 228-9506 / E-mail: chdailya@gmail.com  
주소: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 예루살렘에서



김한요 목사  
세리투스장로교회

예루살렘에서  
느끼는  
주님의 흔적들

다시 아내의 설거지를 돕기 시작했다. 다시 라면을 끓이고, 반찬을 그릇에 담아 냉장고에 넣고 꺼내는 일을 시작했다. 옷을 정리하고, 깔끔떠는 청소를 시작했다.

늘 집안 일을 돕지 않는다는 아내의 불평을 안식년 기간에 하겠다고 미뤄 놓았다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시작했다. 안 하던 운동을 하면 온 몸이 빠근하듯이, 나는 지금 그 빠근함에 있다.

소박한 예루살렘연구소 기숙사에서의 생활이 마치 신혼 초기 워메드룸 아파트에서 살림을 차렸던 생활로 기억된다. 모든 것이 어색했지만, 50대에 시작하는 신혼 생활처럼 신기하기만 하다. 몇 년만인가?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 설교 준비나, 예배를 따로 준비해야 할 긴장과 부담이 없는 안식 기간, 첫 주일을 맞이한다. 이곳 예루살렘은 토요일 안식일 시스템으로 모든 사회가 돌아가기에 한인교회도 토요일에 주일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예배만 드리겠다는 기대심에 예배를 기다린다.

야자수가 길가에 뻗어있고, 모든 도시가 돌로 지어진 것 같이 맨 돌, 맨 담인 예루살렘에 평평 눈이 내린다. 안그래도 신기한데, 함박눈이 내리는 예루살렘은 더욱 신비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함께 기속하고 있는 목사님과 성도교회를 찾았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다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교회이다. 삭막하고, 쓸쓸했을 골고다는 없고, 모든 종교의 집합

지 같은 형형색색과 온갖 테코레이선으로 치장된 골고다는 웬지 내 마음에 와 계신 예수님과 낯설게 느껴진다. 수많은 순례자들의 종교성을 본다. 관광객 뿐 아니라, 모든 정교회, 가톨릭 성도들의 끊임없는 순례에 가끔 보이는 중국교회 성도들, 물론 한국교회 성도들도 만난다.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져 놓였다는 무덤도 확인했다. 로마병정에 끌려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며 넘어지고 멈추어 서셨던 비아도로로사(via dolorosa)를 묵상하며 걸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길을 가셨다는 말인가?” “왜 날 사랑했나?” 다시 신혼생활을 시작하듯, 그 주님을 오늘 예배 시간에 만나 그 설레임의 출발을 하고 싶다.

## 나타나야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예비해 놓았던 ‘새 무덤’에 시신을 모시고 가서 니고데모와 함께 값 비싼 향품과 세마포 옷으로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러 드렸습니다. 나타나야 할 때 나타나는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그림자 같이 따르는 멋진 호위병 같은 사람은 잘 안 보이는 곳에 있지만 그러나 나타나야 할 때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훌륭한 제자인 것은 나타나야 할 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타나야 할 때 나타나야 하는 이 문제에 대해 3가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나타날 때가 아닌데 나타났다가 오히려 화를 당한 기억이 있어서 주저합니다. 2)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야 할 때를 잘 몰라서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3) 막상 나타나야 할 때를 알아도 상황을 보며 겁이 나고 두려워서 잠잠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

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타나야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평소의 삶에 충성되어야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그가 중요한 사람이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27:57)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막15:43)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 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눅23:50)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나” (요19:38)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는 신앙과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 받는 리더였고, 선하고 의로운 부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놀라운 평가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교회가 맥없이 휘둘림을 당하곤 하는 것은 나타나야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위해 뜨거운 가슴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에 흥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타라도 하신 것처럼 너무 경솔하고 가볍습니다. 신앙의 영적 깊이가 너무 낮고 신앙인의 신의가 너무 천박합니다. 다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흥분하는 척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결국 자기 이익, 기껏해야 자기 가족이나 친구나 아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 흥분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교회와 힘없고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까? 입바른 소리는 쉽게 하면서 정말 내 것을 먼저 희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역사는 나타나야 할 때 나타나는 충성된 사람을 통해 증거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나타나고, 무엇에 흥분하고 있습니까? 살렘!



#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경산 한의과병원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원장 류재규

경산 한의과 대학 교수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몰 2층) LA, CA 90006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홈페이지 제작**

제작비용 걱정, 이제 그만! \$499

저렴하고 빠르게 제작  
풍부한 제작경험을 토대로 장성것 제작해드립니다.

제작문의 213.364.2124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방수·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발코니, 지하실, 창틀방수  
크랙 물 새는 곳, 특수 방수공법  
완벽 시공, 3년 개런티

213-327-9929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사과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ttless Shelving

99센트 미닛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편리함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마켓용 Gondolas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과 외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스텐튼대학교

sasafterschool.blogspot.com

말고 말기세요. 아이들의 성적이 달라집니다 K~6

Math  
English  
ESL  
Writing  
Bookclub

**APPLE TREE ACADEMY**

Pick up, 건강관 심안과 함께  
학교공부 준비를 100% 도와 드립니다.

213.507.5045

귀국 자동차운송 **업계최저 \$950**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시내· 타주이사·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금** 최고가 현금매입  
삽니다

10K, 14K, 18K, 금, 은수저 등  
(무료출장매입)

LA: 213-407-8759 / Other: 714-293-9701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30여개국 해외진출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텐튼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 트랜스미션
- 타이밍벨트
- 브레이크
- 툰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가나 JJ 플러밍** 빵

들어요!

- 메인 하수관 300피트 OK(초강력 머신 보유)
- 나무 뿌리로 자주 막히는 하수관(근본적인 해결)
- 싱크대, 욕조, 반기 등
- 노후된 파이프를 동 파이프로 교체
- 새거나 타진 파이프 신속하게 해결
- 각종 Faucets, 디스포저, 보일러, Toilet(수리 및 교체)

많은 고객에서 다시 찾는 플러밍입니다.

Tel. 213-220-4123

**dish NETWORK AUTHORIZED RETAILER**

\$29.99 /월, 12개월간

120개 이상의 미국채널  
무료 HD채널 (60개)이상  
무료 24시간 KBS

디시 네트워크 공인딜러 **KNA**

www.knamedia.com

1.888.894.8949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cliff Ave. Lancaster, CA 93535

**편라이즈 페인팅 SUNRISE PAINTING**

- 페인트, 루핑, 플러밍, 목수일
- IN & OUT SIDE
- 상업, 주택, 아파트 23년 경력

(모든일 직접 정직하게 저렴하게 해드립니다.)

Paul Seo, TEL : 213-884-7055 / 213-858-8484  
418 S. Newhampshire Ave. LA, CA 90020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거리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951) 674-2581 / 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7월세일

10개 기본창문(햇빛차단 Low-E)  
\$2,699 + Tax

창문 10개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제작(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

2월 24일(금) 시험대비 CDT 치과기공사 면허 응시생 모집  
안정된 기술직업 - 한번 시작해 보세요!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현재 숙성과정 학생모집 (원스, 포셀린, 메탈, 모델, 의치)
- 전 치과 기공 대학 확장,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목사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월서은행 3층)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한국방송 + 미국방송 동시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크레딧카드 은행구좌 당일현금**

- 한국구좌 및 신규구좌 가능
- 크레딧 700이상(20만이상)

\*유학생 및 귀국자 특별플랜

T. 213-278-4466

**★ 집·건물 경매 STOP!!! ★**

긴급경매 NOT, TRO, QWR, BK 전문

- 최장기간 연장 "합법거주" 약속 퇴거명령변복, 연방법, 주법 의거함.
- 그외 형사상채, 마약소지및판매, 강도, 강간, 폭행, 배우자폭력, 음주운전...

"당대 최고의 변호사들이 변호합니다"

메리츠 법률그룹 / 이진우  
18000 STUDEBAKER ROAD, #700, CERRITOS, CA 90703  
TEL: 888-210-1238 / FAX: 888-210-1239

# 이번 여름성경학교 이렇게 해 보세요

## 어린이전도협회 한인지회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



여병현 목사



교사강습회에 참석한 주일학교 교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방법론을 배우고 있다.

미국 어린이전도협회(CEF)의 한인지회(회장 여병현 목사)가 2012 어린이정소년 교사강습회를 4월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LA사랑교회와 5월 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가주사랑교회에서 두 차례 개최한다.

프로그램은 여름성경학교, 예배 찬양, 교회학교 교사훈련, 부모/교사/어린이와의 관계, 교회학교 행정/운영, 교회학교 교육/시청각 자료, 교사 소명과 사명, 단기선교/캠프/전도 프로그램 등이 이뤄지

며, 이중언어(영어 70%, 한국어 30%)로 진행된다.

대상은 주일학교 교사, 자원봉사자, 교육전도사 등이다. 등록비는 1인당 70불이며, 10명 이상 할 경우 60불이다.

CEF는 180개 국에서 사역하는 국제적이고 초교파적인 어린이 선교단체이다. 여병현 목사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주일학교에서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이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기쁨을 얻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복음 중심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과적

으로 전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교사들이 훈련되지 않고 짜여진 공과 공부대로 가르치는 부분이 많은데 어린이들이 구원과 신앙 성장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강습의 초점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여병현 목사와 일문일답.

**-이번 교사강습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여름성경학교에 필요한 모

든 제반 자료를 공급한다. 찬양, 게임, 성경공부, 공예(크래프트) 등 활동적인 부분을 많이 준비했다.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은 진행이 어떻게 되나.**

교사들이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인 복음을 1대 1로 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어린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기도와 성경읽기, 반 운영, 시청각 자료 사용법, 풍선, 종이접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복음을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도록 도와준다.

**-교사강습회를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주일학교는 방법이 중심이 되기 쉬운데 원칙적으로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충실히 가르쳐서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기쁨이 어린이들에게 있어야 한다.

지금 교회들이 방법과 활동적인 것에만 집중함으로 어린이들의 영적 성장이 더딘 것이 안타깝다.

**-올해로 강습회를 연 지 20년이 넘었다. 지금까지 참석자를 반응은**

어떠한가?

대체로 많이들 좋아하신다. 레크리에이션은 매회 들어가지만, 내용과 강사는 달라진다. 신실하게 참석하는 분들은 매회 계속 참석한다. 교사들이 훈련되어야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전문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도전도 받고 리더들 교육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습회 과정에서는 성경공부와 예배 드리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어린이들이 재미있어 하는 방법도 많이 필요하니 다양한 도구를 익힐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강사들은 어떤 분들이 참석하나?**

주일학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경험 많은 분들이 참석해 노하우와 경험을 전해 준다.

**-주일학교 교육에 대한 지론이 있다면.**

일반 교육학적으로는 나이대별로 방법론이 필요하다. 기독교 교육은 방법론이 다를 수 있다.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이별로 맞춤 교육은 필요하지만 방법론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회적·지적 발달에 따라 다르지만 크리스천 교육은 성령께서 주도하는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실한 것은 어릴 때 좋은 교사에 배우면 어린이들의 평생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관과 신앙관을 심어 주면 절대로 교회를 안 떠난다. 어린이들을 신앙으로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떠나라고 해도 안 떠날 것 같다. 뜨거운 예배와 찬양, 성경공부, 나눔, 섬김, 봉사 등에 초점을 맞춰 교회학교를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 기독교 교육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삶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일반 교육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문의) 213-382-1544  
토마스 맥 기자

## 성경적 효, 성경의 말씀대로 살자는 복음 전파 사역

### 효사랑선교회 독거노인 돕기 드라마 예배 준비 중

기독교와 효 간에는 웬지 적지 않은 거리감이 있을 것 같다. 기독교는 서양 종교이고 효는 유교적, 동양적이라는 생각부터 구약의 '본토 친척 아버의 집을 떠나라'는 구절이나 신약의 '화평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분쟁을 주어 아버지와 아들을, 어머니와 딸을 분쟁하게 하겠다'는 말씀이 모두 효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효사랑선교회는 "효가 과연 무엇인가"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회장 김영찬 목사는 "성경

적 효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자는 가르침"이라고 강조했다. 심계명 가운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효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지만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이 효는 아니다.

효사랑선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아가 자녀들,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신앙을 물려 주어 이민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효를 전파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런 사역적 측면에서

불 때, 효는 복음 전파 사역이며 사람 실천 사역이다.

이 선교회는 가정 안에서 효가 실천되기 위해 가르침을 전하는 동시에 관계회복교실, 각종 캠페인, 글짓기 대회, 독거노인 후원 등 다양한 외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노인대학은 한 학기마다 60여명 이상이 등록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리고 오는 4월 29일에는 독거노인 후원을 위한 드라마 예배를 드린다. 로템전인치유센터와 함께 하는 이 드라마는 '거울



회장 김영찬 목사와 총무 한석호 목사

이란 제목으로 열린다. 1세는 물론, 15세, 2세대까지 공감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로 드라마가 진행되며 현 이민가정 가족구성원 간의 상처와 아픔을 제3자의 시각으로 보는 형식이다. 총 6장으

로 구성된 이 드라마를 통해 가족의 치유와 사랑을 나누게 되며 이를 통해 효와 관련된 기독교적 가치를 전파하고 수익금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김영찬 목사는 "효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도 안된다. 그저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님에게 드리는 작은 사랑과 관심이 효이며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려는 것이 효이다"라고 강조했다.

문의 및 후원) 714-670-8004  
김준형 기자

아·이·토·크·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무제한

중앙일보/인타임(www.inx.com) [조인스아메리카 선정]  
"3년연속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 3개월 무료!

\*마지막 기회! 서두르세요!

지금 가입하시면, **3개월 무료!**

최대 \$105 상당

행사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글로벌 플랜**  
Global Unlimited Plan

\$24.99

/월  
기타 수수료 포함

- 미국, 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통화
- 한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통화
- 발신자 표시 가능, 착신전환 가능

**글로벌 플러스 플랜**  
Global Unlimited Plus Plan

\$34.99

/월  
기타 수수료 포함

- 한국인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플랜
- 글로벌 플랜의 모든혜택은 기본
- 한국 휴대전화 까지 무제한 통화!

**무료 부가서비스**

- 휴대전화에서 매월 국제전화 500분 통화가능
- 한국 전화번호 제공\*\*

[30일 환불 보장]

아이토크비비

1.800.872.2902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http://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3개월 무료 프로모션 - 본 프로모션은 행사기간 내 글로벌 플러스 플랜에 가입한 신규 가입자에 한합니다. 총 18개월의 계약기간이 있으며, 계약기간 내 서비스 액시시 위약금(\$59.99)과 보상 받으실 수 금액 한도 부과됩니다. 모든 프로모션의 최종 책임은 iTalk Global Communications, Inc. 에 있습니다. \*\* 무료 부가서비스 마이크로페이먼트를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청구되거나 취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품질이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0일 환불 보장 기간 이후 서비스 액시시 이미 납부한 월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무제한 플랜 가입자에게는 개통비(\$29.99)가 부과됩니다. 무제한 통화 가능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외의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으며, Puerto Rico, Guam, US Virgin Islands 등 미국 해외 영토의 통화는 무제한 통화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http://www.Korea.iTalkBB.com) 을 참조하거나 고객 상담원 1-800-872-2902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도2012에는 환불보증을 위해 중개 업체 대신 연인하고 연인한 온라인 크레딧 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800.875.8318

고객상담시간 : 365 일 오전 6시 ~ 저녁 10시 30분 (PST)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해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얻으세요.

아이토크비비 공식 가입센터 모집

한인마케팅 매장을 보유하고 계신분 또는 전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가입센터 상담전화 : **703.348.7544**  
(통화시간 월~금 오전 10시 ~ 오후 6시)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 HQ 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16 병을 200 불에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Citric Acid

모든 구연산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효과가 다릅니다. HQ구연산은 낫지 않는 병이 없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Kosher Approved Organic/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의 농도

100불에는 7병, 한 병은 30불, 2병은 50불,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100불 이상 구입시에 우선 한 병만 사용해 보세요. 어떤 질병일지라도 한 달 정도면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만일에 본인이 느끼기에 효과가 없다면 사용하신 병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가져 오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100% 환불해 드립니다. HQ구연산으로 효과를 못 보신 분들에게는 절대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Made in USA

## 노벨상 3회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아보면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기쁘게되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똑똑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옴.
- ★ 검버섯이 구연산 복용 후 한 달이 지나 없어지거나 약해짐.
-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나는 다른 제품이 없어도 구연산만 있으면 건강하게 산다.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 ★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은.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 ★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옴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비염이나 콧물에 고생했는데 구연산 3개월 먹은 후 회복됨.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찜질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씹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심건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염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구연산 장기 복용 후 눈의 시력이 몰라보게 좋아짐을 체험.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헹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낫고 회복.

수많은 체험사례들이 비디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막힌 체험사례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해 주세요.



##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해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음식물의 완전 흡수를 도우며 자연치유력에 또한 최대한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인디오텐신이라는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당뇨병은 인슐린과 그 반대 역할을 하는 효소 간에 밸런스가 깨져 생기는데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핀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히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발목 무릎,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유산이 체내에 축적되고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인체 내 젖산 등의 피로물질을 분해하여 피로회복에 효과적이며 자연치유력을 최대한으로 높여준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며 면역능력을 증진시킨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강한 체질,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